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및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대 광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및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 of Victim Justice Sensitivity  
on Re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 of Entitlement Rage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대 광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및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대 광

## 김대광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	8
A. 반응적 공격성 .....	8
1. 반응적 공격성 .....	8
B. 피해자 정의민감성 .....	13
1. 정의민감성 .....	13
2. 피해자 정의민감성 .....	15
3.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	18
C. 특권분노 .....	20
1. 특권분노 .....	20
2.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 .....	22
3.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	23
D. 부모화 .....	25
1. 부모화 .....	25
2. 특권분노, 부모화, 반응적 공격성 .....	28
E. 피해자 정의민감성, 부모화, 특권분노, 반응적 공격성 .....	30

Ⅲ. 연구방법 .....	32
A. 연구대상 .....	32
B. 측정도구 .....	32
C. 연구문제 .....	36
D. 자료분석 .....	38
Ⅳ. 연구결과 .....	39
A.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39
B. 매개효과 검증 .....	41
C. 조절효과 검증 .....	43
D.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47
Ⅴ. 결론 및 논의 .....	50
참고문헌 .....	55
부록 .....	76

## 표 목 차

<표 1> 피해자 정의민감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3
<표 2> 반응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3
<표 3> 특권분노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5
<표 4> 부모화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5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	40
<표 6>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	41
<표 7>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1
<표 8>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	43
<표 9> 부모화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	44
<표 10> 부모화의 평균점수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	46
<표 11>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 .....	47
<표 12>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검증 .....	48
<표 13>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48
<표 14>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9



## 그림 목 차

[그림 1] 수정된 사회정보 처리 모델 .....	10
[그림 2] SeMI 모델 .....	17
[그림 3] 연구 문제 1 모형 .....	36
[그림 4] 연구 문제 2 모형 .....	37
[그림 5] 연구 문제 3 모형 .....	37
[그림 6]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	42
[그림 7]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 그래프 .....	45

## ABSTRACT

### The Effect of Victim Justice Sensitivity on Re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 of Entitlement Rage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Kim Dae Kwang

Advisor : Prof. Jung Seung Ah,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entitlement rage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justice sensitivity and re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86 teenagers aged 14-16. The questionnaire included scales of victim justice sensitivity, entitlement rage, parentification, reactive aggress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PSS 22 and SPSS PROCESS Macro 3.4 for verifying medi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result: First, entitlement rage partially mediated between victim justice sensitivity and reactive aggression. Second, parentific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itlement rage and reactive aggression. Thir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justice sensitivity and reactive aggression, there wa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itlement rage.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victim justice sensitivity, entitlement rage, parentification, reactive aggression, the moderated mediation.*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육부(2018)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또래에게 폭력을 가한 이유는 괴롭혀서(26.2%), 장난으로(20.5%), 마음에 안 들어서(13.9%), 이유 없이(10.6%), 화풀이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7.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에 대해 많은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던 한 정신과 전문의가 가해 청소년들에게 들었던 폭력의 압도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녀서...”였다(정신의학신문, 2019.04.23.). 이는 청소년의 폭력행동 중 일부가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한 반응으로 충동적이고 보복적으로 나타난 공격행동이었음을 알려준다.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과도기인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좌절 상황을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수균, 2007). 이와 함께 공격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며 학습 및 반복을 통해 이후의 청소년 비행과 성인의 공격성으로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백혜정, 황혜정, 2006; Barker, Tremblay, Nagin, Vitaro, & Lacourse, 2006; 안지현, 이승연, 2013 재인용; Dubow, Huesmann, Boxer, & Smith, 2016). 그렇기에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일어난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국민일보, 2017.09.18.)’, 피해자가 버릇이 없고, 가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렸다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아시아투데이, 2017.09.05)’과 같이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 흉포화(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와 맞물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서는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세계일보, 2018.10.14). 이러한 분노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 America Psychiatry Association, 2013)에서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와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국민일보, 2019.06.18.). 물론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모든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분노 및 충동적인 공격성과 관련하여 선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7년 기준 5,986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이후 4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세계일보, 2018.06.09).

위의 청소년 범죄 양상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IED의 증상은 폭발적인 분노와 공격성, 사건에 비해 과도한 충동적 공격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Coccaro, Lee와 McCloskey(2014)는 IED의 공격적인 폭발이 충동 또는 분노 기반, 즉 반응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응적 공격 행동이 핵심증상이라 언급하였다. 이러한 IED는 아동기 후반이나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만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의 유병률은 12.7%로 청소년에게서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발달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발달적인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Coccaro et al., 2004; Grant & Won, 2007).

이러한 분노 및 충동에 취약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공격성으로 인해 나타난 범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0대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심각한 물리적 손상과 심리적 부적응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큰 손실임을 틀림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 분노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에 취약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볼 수 있다.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은 좌절-공격성 모델(frustration-aggression model)에서 유래한 용어로(Berkowitz, 1989), 타인의 행동, 좌절 상황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방어적 분노 반응이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행하는 적대적이고 보복적인 행동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을 의미한다(Crick & Dodge, 1996; Dodge & Coie, 1987).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어려움,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Card & Little, 2006; Fite, Rubens, Preddy, Raine, & Pardini, 2014), 성인기의 만성화된 행동문제, 성격장애, 그리고 테이트 폭력을 고유하게 예측한다고 보고되어 왔다(Brendgen, Vitaro, Tremblay, & Lavoie, 2001; Temple, Shorey, Fite, Stuart, & Le, 2013; Tremblay, Hartup, & Archer, 2005). 이와 같이 반응적 공격성은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적응문제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응적 공격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 내적요인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 환경적 요인은 학대경험과 부적응적인 양육태도 등이, 개인 내적 요인은 적대적 귀인편향, 의도적 통제의 결함, 실행기능의 결함,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오류, 분노반추, 경계선 성격성향, 내현적 자기애, 피해자 정의민감성 등이 있다(권민정, 박주희, 2015; 박성원, 전성영, 박수현, 2017; 이승연, 이유미, 김엘립, 2018; 장희순, 이승연, 2013; 천주명, 임영진, 2017; 최은실, 2018; Lobbestael, Cima, & Arntz, 2013; Vitaro, Brendgen, & Barker, 2006; White, Jarrett, & Ollendick, 2013).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이 상황 및 대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해석, 그리고 통제 및 조절의 결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반응적 공격성만의 독특한 특징이 단서에 대한 적대적 해석인 것을 고려하면(Dodge & Coie, 1987), 그러한 해석을 촉발하는 중요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의 핵심 양상이 적대적 해석에 대한 방어적 분노 반응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위협을 민감하게 인식해 분노를 유발하는 성격변인인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Mikula, Scherer, & Athenstaedt, 1998; 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의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성격 특성이다. 개인들이 부당함을 쉽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며, 주관적 부당함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Mohiyeddini & Schmitt, 1997; Schmitt et al., 2010). 정의민감성의 하위요인인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중심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부당함에 대한 모호한 상황이나 언행, 약간의 의심스러운 단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기 쉽고, 그 상황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 보복 욕구를 느끼며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보복적 공격행위를 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Baumert et al., 2012; Bondü & Richter, 2016; Mohiyeddini & Schmitt,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부당한 대우나 불공정한 상황, ‘신뢰할 수 없음’의 단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모호한 상황도 다소 부당하다고 해석하게 한다(Baumert et al., 2011; Baumert & Schmitt, 2009). 그 결과 상대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Gollwitzer, Rothmund, & Süßenbach, 2013). 또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에 분노와 보복으로 반응하는 경향(Schmitt et al., 1995)을 보이며,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ndü & Krahé, 2015;

Gollwitzer et al., 2005/2009). 다시 말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을수록, 부당함이나 ‘신뢰할 수 없음’의 사소한 단서에도 쉽게 분노와 보복욕구를 느껴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 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 정의 민감성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 역동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제로 특권분노를 설정하여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권분노는 자기애의 하위 요인이자 독립적 구성요소인 특권의식에서 기인한 분노다(Grubbs & Exline, 2016). 특권의식의 부적응적 특성을 지닌 자기애적 특권의식(Pincus & Lukowitsky, 2010)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웅대한 자기애나 내적 환상의 좌절에 대한 회피인 부적응적인 방어기제로 특권분노를 사용한다(Dickinson & Pincus, 2003; Kernberg, 1998; Ronningstam, 2005). 특권분노는 자신이 부당함을 겪었거나 참아 내야 했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 그 불의나 부당함에 반항하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한다(Bishop & Lane, 2002). 즉,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는 자신의 권리와 대우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화 하는 인식을 포함한다(Exline, Baumeister, Bushman, Campbell, & Finkel, 2004).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 사이에 정적 상관을 유추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당하다는 느낌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계속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특권의식은 끊임없이 활성화되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권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다(Bishop & Lane, 2000; Freud, 1916; Shabad, 1993; Zitek, Jordan, Monin, & Leach, 2010 재인용). 또한 다양한 수준의 박탈과 자기애적 위협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다시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거나 그것을 참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Bishop & Lane, 2002). 따라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불공정, 부당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으로 인한 부정정서를 유발하고, 그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서 자기애적 특권의식을 통해 분노를 경험케 할 수 있다.

또한 특권분노는 대인관계 갈등, 적대감, 직업 관련 좌절, 원한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Exline et al., 2004; Harvey & Harris, 2010). 뿐만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 하는 지각 왜곡이 일어나며, 보복이나 공격충동을 증가시킨다(Harvey & Martinko, 2009; Reidy,

Zeichner, Foster, & Martinez, 2008).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특권분노가 강렬한 분노감과 보복적 충동을 유발 시킨다는 점에서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가 매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심리내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선 안 됨을 말한다. 덧붙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일은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치료적 접근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김보람, 최수미, 2016), 불공평, 부당한 느낌이 특권의식, 분노, 불신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Zitek, et al., 2010;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김정미, 2006)과 정서표현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부적응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정윤, 전소연, 2012; 최옥순, 2016)에 근거해 부모화를 특권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제안한다.

서구화로 인해 가족 구조는 핵가족화 되고, 빠른 사회적 흐름만큼 현대 가족의 형태와 생활양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이명진, 최슬기, 2011). 이러한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 내에서 부모 상실, 이혼 및 별거, 부모의 직장근무 등 부모의 부재 경험(조은영, 정태연, 2005)은 가족 체계 내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유발해 가족 내 자녀의 역할 변화를 야기한다(박선정, 정규석, 2016). 또한 한국의 가족관계 특성상 자녀의 독립시기가 외국보다는 늦은 편이며, 부모-자녀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강한 일체감을 갖는다(석미정, 2016). 이와 같은 환경은 자녀들이 가족 구성 내에서 과도할 정도로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를 유발하며 이를 부모화로 볼 수 있다(김보람, 최수미, 2016). 부모화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간의 역할반전을 말하며(Jurkovic et al., 2004),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과 같은 부모화는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타적이면서도 적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바람직하다고 인식된다(조은영, 정태연, 2004).

하지만 이러한 부모화 경험은 자녀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희생하며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부모 역할을 내면화하는 아동의 성인화(강선모, 2013), 낮은 자존감과 대인관계 수준(Byng Hall, 2002/2008; Jurkovic et al., 2001)을 보이는 등의 부적응적인 양상



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부모화 된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은 개인의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아가 개인의 자아 및 성격으로 내면화되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Boszormenyi-Nagy, Spark, 1973; 문소희, 유순화, 윤경미, 2014 재인용). 구체적으로 부모화 된 자녀는 지속적인 책임과 과다와 불공평 및 연민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불안, 허무, 소외감, 우울, 분노, 대인예민성)를 갖게 되거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Byng Hall, 2002; Jurkovic et al., 2001; Wells, Glickauf-Hughes, & Jones, 1999; 이하나 외, 2006). 특히 부모화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불공평감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한다(Jackson, Kubzansky, & Wright, 2006).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만족스러운 또래관계 내에서 정서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문소희 외, 2014; 최옥순, 2016). 이러한 부모화의 불공평감은, 자신의 욕구가 억압되고 박탈되는 과정이나 상황에서 겪는 수치심으로부터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권분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선모, 2013; Bishop & Lane, 2002). 또한 부모화 된 자녀들은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거나 억압하는 경험이 잦아, 자신의 부정정서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대인관계 문제로 심화 될 수 있다(강선모, 2013; 정해인, 오인수, 2016; 최옥순, 2016). 이는 부모화 경험이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응적인 정서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했을 때, 자기애적 위협에 회피전략으로 나타난다는 특권분노가 부모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어려움과 상호작용하여 분노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하고, 부적절한 대처전략인 반응적 공격성의 보복 동기와 충동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소희 외, 2014;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 2018; Bailey & Ostrov, 2008; Bushman & Baumeister, 199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첫째,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특권분노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화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만으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엔 연구결과가 부족한 편이다(Bondü, 2018; Bondü, & Krahé, 2015; 이

승연 외, 2018). 또한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변인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승연 외, 2018). 덧붙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접근이 공정성 또는 부당함과 관련된 개인의 인식과 신념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의 정서 및 사회적 기술 능력의 향상에 주로 중점을 뒀던 대다수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정의나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이나 공정성이 중시되는 현 사회의 흐름에 맞춰 살펴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최소영, 이승연, 이승미, 2019). 이에 더해 타인의 비열함, 착취 의도에 근거한 부당함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작동하여 반응적 공격성을 촉발시키는 지, 즉 반응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지각된 위협의 구체적인 영역 중 하나로 착취나 부당함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유선, 2018).

한편 이전의 연구들은 반응적 공격성의 발현되는 원인을 분노감을 경험하게 하는 성향(박희희, 2017; 안지현, 이승연, 2013)과 분노의 정보처리 과정(권민정, 박주희, 2015; 배라영, 최지영, 2018; 장희순, 이승연, 2013)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똑같은 분노 수준이더라도 공격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공격행동의 근원이 단순한 분노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심리내적 요인이 개입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Archer, 2004; Buss & Perry, 1992). 이에 따라 특권의식이라는 요인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가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반응적 공격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이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의 부적응을 개인의 특성,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서만 바라보기보다 가족 체계의 틀 내에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화 된 청소년 내담자들이 가족 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반으로 현재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인원, 홍혜영, 2015).

따라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함께 부모화 수준이 특권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가설을 두어 이러한 변인들의 구조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반응적 공격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적응부터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노 및 충동과 관련된 피해와 위협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 A. 반응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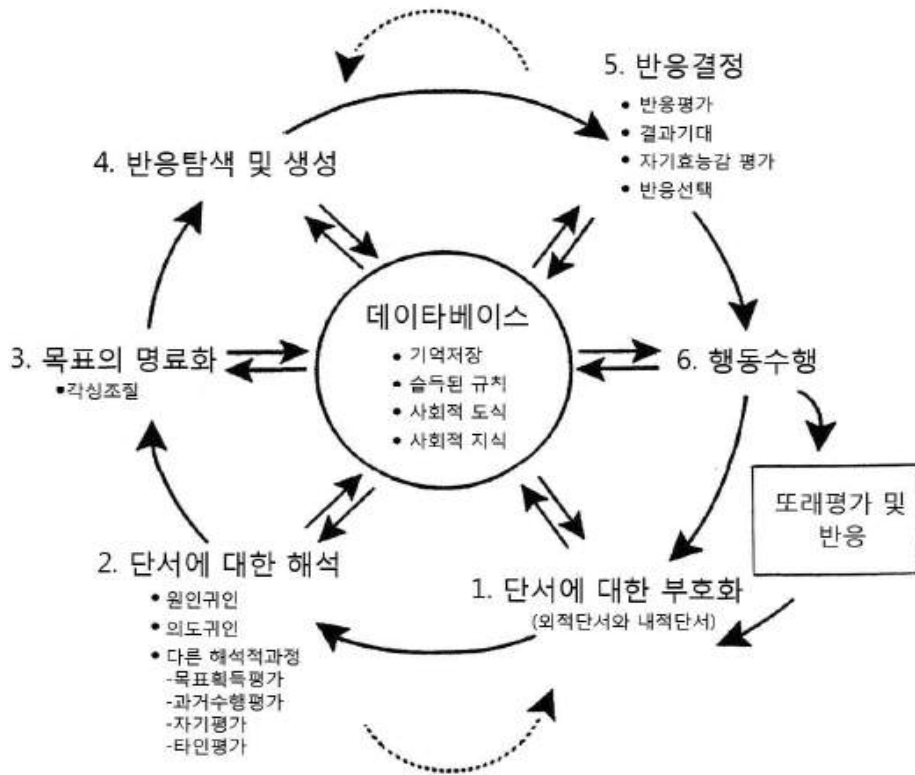
#### 1. 반응적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는 행위(Anderson & Bushman, 2002)를 포함해, 의도와 동기는 있지만 수행하지 않은 모든 공격적인 행위를 뜻한다(Dodge, Coie & Lynam, 2006). 이러한 공격성은 개인의 신체, 정서,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나 고통을 경험하게하고, 타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치기에 공격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Archer & Coyne, 2005; Crick & Grotpeter, 1995).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형태, 목적 등에 따라 공격성을 다양하게 정의 내려왔다(Dodge & Coie, 1987, Poulin & Boivin, 2000; Vitaro et. al, 1998/2002). 공격성의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어떤 이들은 형태에 기초한 물리적 공격과 비-물리적 공격(Tremblay, 2000) 또는 직접 및 간접/관계 공격으로 구분을 제안하기도 했다(Crick & Grotpeter, 1995). 또 다른 이들은 내재된 목표(즉, 기능이나 동기)에 기초한 공격성의 하위 유형 구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격성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나뉘어 왔고, 그 중 공격 행동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 하위 유형 중 하나인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Dodge, 1991). 공격성을 다양한 근거로 나뉘어 연구한 이유는 공격성의 특징과 발현양상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그 중 기능과 동기에 기초한 공격성을 분류하는 것은 이분법 모델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신경학 및 생물학적 증거와 정서와 동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에 타당성이 분명하다(Anderson & Bushman, 2002; Meloy, 2006; Blais, Solodukhin & Forth, 2014; Bobadilla, Wampler & Taylor,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에 따라 구분한 공격성인, 반응적 공격성의 개념을 사용해 공격성의 특징과 발현양상을 이해 하고자 한다(Dodge & Coie, 1987).

주도적 공격성은 분노나 도발이 없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이득을 얻기 위해 도구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공격행동이며,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분노나 적대적, 보복적 반응과 관련 있는 공격행동이다(Dodge & Coie, 1987; Gardner, Archer, & Jackson, 2012). 이 두 유형의 공격성은 다소 관련은 있지만 구별이 가능하며

(Ollendick et al., 2009) 주도적 공격성은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공격 모델에 근거해 기원을 설명한다(Berkowitz, 1989). 좌절-공격 모델은 공격행동이 좌절의 결과로 발현되었다고 설명한다. 공격성은 “본능적인 반응(raw response)”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이나 고통을 피하는 행동이 차단 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Fox & Spector, 1999 재인용). 그렇기에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의 결과로 목표나 기대가 차단되면 적대감과 분노가 촉발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의 증가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좌절의 근원에 해를 입히려는 공격의 준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차단된 목표가 중요할수록 좌절감은 커지며, 공격적 충동은 커진다(Dollard et al., 1939; Tremblay et al., 2005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반응적 공격성은 적대적, 방어적, 충동적 또는 감정적 공격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Anderson & Bushman, 2002; Ford, Fraleigh, & Connor, 2010, Holmes & Will, 1985). 반응적 공격성은 방어적이고 보복적인 반응이기에 좌절 또는 위협 자극이 선행한다. 즉, 실제 또는 지각 된 도발, 좌절 또는 위협의 선행 조건의 결과로 대개 분노가 촉발되어 자기-방어 전략으로서 충동적이고 보복적인 공격행동을 보인다(Tremblay et al., 2005).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의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실제 또는 지각 된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정보처리 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SIP)은 그러한 반응 과정의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모델 중 하나였으며,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정보처리 과정에서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91; Dodge & Crick, 1990). Crick과 Dodge(1994)는 수정된 사회 정보 처리 모델 6단계를 발표하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공격행동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과거의 축적된 경험이나 기억을 기반 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부호화와 해석, 목표 명료화, 반응 탐색 및 생성 그리고 결정의 단계를 거쳐 행동하게 된다.



[그림 1] 수정된 사회정보 처리모델(Crick & Dodge, 1994: 배라영, 2017 재인용)

정보처리의 초기 두 단계는 특히 적대적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부호화 단계에서 과거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 상황에 있는 적대적 신호(단서)를 보고 선택적으로 부호화 한다. 이어서 적대적 단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과를 왜곡시켜 인식함으로써, 상황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Wilkowski & Robinson, 2010). 이러한 과정과 해석에 의해 개인은 분노나 부정적 정서를 촉발시키게 된다. 즉,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상황에 대한 적대적 단서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단서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Graham, Hudley & Williams, 1992). 이러한 특정 단서에 대한 선택적 부호화와 해석은 모든 공격성 유형에 해당하는 특성이 아니라 반응적 공격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Dodge & Coie, 1987). 그렇기에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적대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 해 볼 필

요가 있어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응적 공격성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Blais et al., 2014; Card & Little, 2006; Polman, Castro, Koops, Boxtel & Merk, 2007). 먼저,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 있는 인지적 요인을 보면, 사회 정보처리 모델 과정에서 단서의 부호화와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는 적대적 귀인 편향이나 타인행동 귀인, 주의력의 결함, 분노반추, 분노표현양식,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관련이 있었다(백승혜, 현명호, 2008; 안지현, 이승현, 2013; 장희순, 이승연, 2013; 최영임, 임정섭, 김교현, 2018; Crick & Dodge, 1996; Dodge & Coie, 1987; Dodge et al., 1990; Graham & Hudley, 1994; Werner & Crick 1999). 위의 요인들과의 관련은 반응적 공격성이 모호한 단서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경향, 타인의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한 반응과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보일 수 있음을 뜻한다(Vitaro et al., 2002).

이어 반응적 공격성의 핵심 정서인 분노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특성분노, 집행기능의 결함, 의도적 통제, 자기애, 불안 등과 관련이 있었다(최은실, 2018; Dodge & Coie, 1987; Wilkowski & Robinson, 2010; Xu & Zhang, 2008; Seah & Ang, 2008.).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판단, 조절하는 능력의 어려움(Poulin & Boivin, 2000; Siever, 2008)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정서 폭발 및 정서 조절의 결함은 흔히 정신병리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응적 공격성이 다양한 부적응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Calkins & Dedmon, 2000; 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또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는 학대경험을 꼽을 수 있다(권민정, 박주희, 2015; 장희순, 이승연, 2013). Van der Kolk(2005)는 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다시 피해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위협적인 단서에 매우 민감해지며, 위협을 지각 했을 때 이전보다 더 적대적인 해석과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리하여 학대 경험자들은 정보에 기초한 반응을 생성하는 대신에 부정적인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Chen, Coccaro, Lee & Jacobson, 2012)

마지막으로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는 자기애, 반사회성 등이 있었다. 국내외, 특히 국내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이 자기애 성향과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백승혜 & 현명호, 2008; 조은영, 곽은희, 2012). 또한 자기애 성향이 높은 개인은 자아 위협(Ego Threat) 이후 느낀 후 분노를 보이며,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f, 1998, Stucke & Sporer, 2002).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애는 학대와 함께 공격의 동기부여로서 폭력 문헌에서 광범위한 변인으로 사용되어 온 면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한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덧붙여 일부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너무 광범위한 구성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Twenge & Campbell, 2003). 그렇기에 반응적 공격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B. 피해자 정의 민감성

### 1.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

민감성, 반응성은 개인차를 이해하는 다양한 심리 이론과 연구 분야의 핵심개념이다. 정신물리학과 지각(perception)에 관한 많은 연구는 지각적 역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tevens, 1975; Schmitt, 2004 재인용). Davis(1983)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반응성이 다르다고 가정했으며 그 외에도 정서 반응성(Strelau, 1996) 등, 개인이 감정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건에 의해 얼마나 쉽게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은 반응성과 민감성의 개념을 채택했고 개인들은 신체 자극에 대한 인내와 좌절, 모호함 뿐 아니라, 도덕적 규범 위반과 부정(injustice)에 대한 수용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Schmitt, 2004). 그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떤 절차와 결과에 직면했을 때 왜 개인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상황적, 사회적 요인보다 더 개인적 요인이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암시하기에(Yamagishi, 2001; Gollwitzer & Rothmund, 2009 재인용), 그 상황을 이해, 판단,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가치 판단 기준이 필요하기 마련이기에, 옳고 그름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의가 그러한 틀이 되곤 한다. 이처럼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며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며, 적절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연구자들은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로 보여주었다(Deutsch, 1985; 김지경, 2015 재인용). 사람들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회·심리적 설명은 상대적 박탈 이론(Walker & Smith, 2002), 형평 이론(Adams, 1965), 절차적 공정성(Thibaut & Walker, 1975) 등 영향력 있는 여러 이론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연구 결과들은 개인이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부당함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부당함(injustice)에 대한 반응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상황이나 불공정함에 민감하거나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개인차는 사람들이 부당한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Mikula, 1994; Mikula et al., 1990). 마주하게 되는 불의에 대해 어떤 사람은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큰 관심이 없거나 둔감하



며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정의민감성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부당함의 인식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격변인이다(Schmitt et al., 1995). 다시 말해, 정의민감성은 불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주관적 불의에 대한 변별적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며(Baumert et al., 2012), 개인들이 부당함을 얼마나 쉽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고 예측할 수 있다(Mohiyeddini & Schmitt, 1997; Schmitt et al., 2009). 정의민감성은 타인과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는 ‘렌즈’로서, 부당한 경험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되는 보복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Baumert et al., 2012).

정의민감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변인이다(Sabag & Schmitt, 2016). 첫 번째, 지각 요소로서 정의민감성은 부정과 관련된 개념의 활성화 역치와 잠재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정의민감성의 부당함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은 핵심요인이다(Schmitt et al., 1995). 세 번째, 부당한 사건에 대한 인지적 몰두(preoccupation), 부당함에 대한 침습적 사고는 정의민감성의 인지적 요소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향이 있다.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경험된 부당함에 대해서 몰두한다. 네 번째, 동기부여적 요소로서 정의민감성은 부당함에 대한 인지·정서적 인식과 정의를 회복하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경향,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보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 등과 같은 행동이나 반응으로서 작용하게 한다(Weiss, Suckow, & Cropanzano, 1999; Schmitt et al., 1995).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쉽게, 빈번하게 불공정을 지각하며, 강한 정서 및 인지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Bondü & Richter, 2016).

하지만 정의민감성은 각 개인이 잠재적 또는 직면한 부당함을 인식하고서 나타나는 반응은 인식한 역할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 가해자, 수동적인 수혜자, 불의의 중립적 관찰자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정서, 인지, 행동 반응 경향에 변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altese & Baumert, 2019; Mikula et al., 1990; Weiss et al., 1999).

정의민감성은 부당함에 대해 질적으로 다르게 관찰되는 정서반응이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가해자, 목격자,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구분된다(Schmitt et al., 2005). 각각의 인식은 동기 부여 및 인지 반응(반추)의 강도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정서반응(분노, 죄책

감 또는 도덕적 분노)도 다르게 보였다(Baumert et al., 2012). 이런 경험적 발견은 예상과 일치했다(Schmitt et al., 2010). 먼저, 가해자 정의민감성(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은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부당함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자기처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이다. 한편, 관찰자 정의민감성(observer justice sensitivity)은 타인이 다른 타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인식하고 분노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으로 반응하게 되는 특성이다(Baumert et al., 2012; Bondü & Richter, 2016; Mohiyeddini & Schmitt,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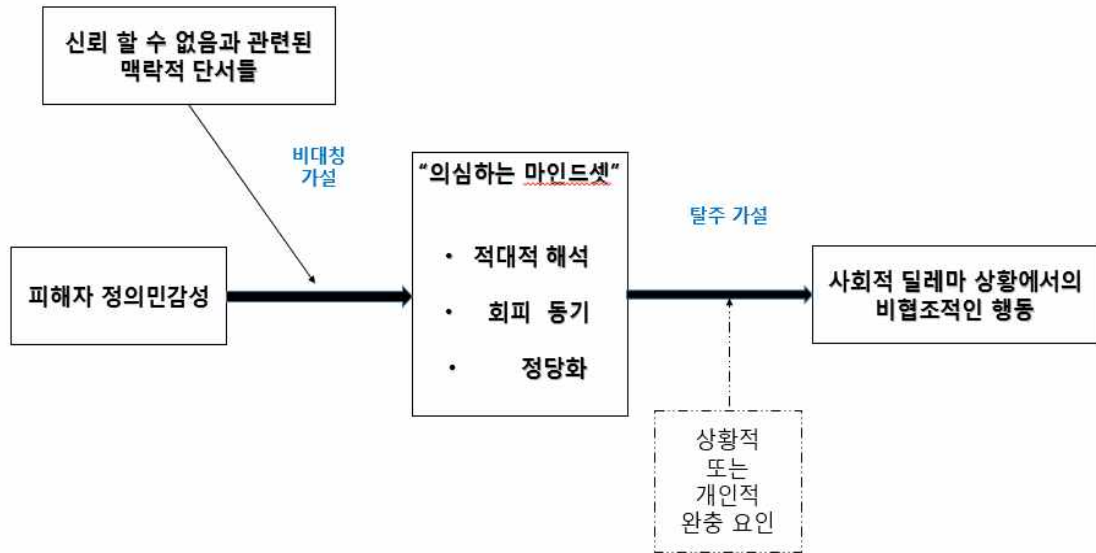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목격자 정의민감성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의 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등 이타적이며 친 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또 다른 정의민감성의 하위 요인인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부당하게 인식하고, 쉽게 피해자로 인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특성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Mohiyeddini & Schmitt, 1997)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2. 피해자 정의민감성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정의민감성의 하위 요인으로써,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촉발되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상황, 약간의 ‘신뢰할 수 없음’의 신호에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더 쉽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 보복 욕구를 느끼고 자신의 기준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성이다(Baumert et al., 2012; Bondü & Richter, 2016; Mohiyeddini & Schmitt, 1997). 이러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형제, 연인간의) 복수와 질투심, 마키아벨리즘, 편집증과의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Schmitt et al., 2005).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반사회적 경향을 포함하며 특정 관계에서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덧붙여 대인관계 신뢰, 자기 효능, 그리고 통제외 내부소재, 불공정 세상 신념(unjust world belief)의 부적 상관(박신원, 2016; Baumert et al., 2014; Lench & Chang, 2007)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관점이 부당한 상황에서 착취의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llwitzer et al., 2005). 이러한 연관성과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특정 관계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상황에서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자신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보복과 같은 적대적인 자기 보호를 통해 부당한 경험이나 이용당하는 사회적 실패를 막는 것으로

로 볼 수 있다(Back, Küfner, Dufner, Gerlach, Rauthmann, & Denissen, 2013; Gollwitzer et al., 2005). 즉, 피해와 부당함에 민감한 개인들은 착취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손실과 불이익을 감지하기 위한 민감한 지각적 도구를 진화 시켰다고 언급한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 단 한 번의 배신 사례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와 맥락을 잇는다(Axelrod, 1984; Cosmides & Toby 1992).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이 만성화되면 타인을 신뢰하거나 이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할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자기 보호적이고 이기적인 전략이 지배적이게 된다. 이는 개인들이 상실, 불이익, 배신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정의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박탈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기-보호적이고 이기적인 대인관계를 기꺼이 채택하려는 특성을 반영한다(Schmitt et al., 2005).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SeMI 모델(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model; SeMI)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한다(Gollwitzer & Rothmund 2009; Gollwitzer et al., 2013). SeMI 모델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다른 사람들이 비열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적인 단서들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정의한다. 즉, ‘신뢰할 수 있음’의 단서보다 ‘신뢰 할 수 없음’의 단서에 대한 민감성으로, 불신의 단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보았다(Gollwitzer et al., 2012). 이러한 비대칭 가설은 피해자 민감성이 착취(이용당하는 것)의 잠재적인 두려움을 수반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의 협동성이나 신뢰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사회적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2중 오류(거짓말쟁이를 신뢰하는 것)를 지나치게 경계해 1중 오류(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lwitzer et al., 2013). 이러한 비대칭적 단서인식에 근거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의심하는 사고방식(Suspicious mindset)’을 활성화 시킨다.



[그림 2] SeMI 모델(Gollwitzer et al., 2013)

‘의심하는 사고방식’이 활성화 되면,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예상을 입증하기 위한 적대적 해석의 가용성, 착취(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예방, 안전에 중점을 둔 동기가 증가된다. 또한 불신과 회피에 근거한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편취, 비난, 공격)하는 자기-방어 전략의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진다 (Gollwitzer & Rothmund, 2011; Higgins & Spiegel 2004). 이는 상황의 사소한 단서에도 협력을 철회하는 탈주가설(Defection Hypothesis)을 통해 사회적 딜레마나 모호한 상황에서 비협조적이고 비윤리적 행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동기를 야기한다(De Cremer, 1999; Gollwitzer et al., 2013; Rothmund et al., 2011). 요컨대, SeMI 모델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불신과 관련된 문맥적 단서, 그들의 인식, 정서적, 행동적 경향에 직면할 때 ‘의심하는 사고방식’을 통해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감소시킨다.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SeMI 모델의 선행연구는 불신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 부당함에 대한 회피동기와 비-윤리적인 행위의 정당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적대적/위협적, 우호적 또는 중립적인 남성 대상의 사진을 보고 우호적인 대상에게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중립/적대/위협적인 사진을 위협적으로 인식한 연구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가상세계에서의 불신에 대한 실험

연구(Gollwitzer et al. 2012; Rothmund et al., 2011) 등을 통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 가상의 위협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축구선수들은 부당한 심판 결정에 대응하여 공격적 행동을 채택할 의사가 있음을 예측했으며(Faccenda et al., 2009), 피해자 민감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동료를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Bondü & Krahe, 2015). 피해자 민감성이 높을수록, 지나친 불신, 착취에 대한 회피,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개인의 대인관계 부적응이나 갈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편집증적인 인식조차도 사회적 환경에서 위협과 장애물을 예측하고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Kramer, 1994). 하지만 착취와 불신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은 타인을 신뢰하는 상황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다양한 부적응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사회적 성격특성 또는 반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 되었다(Fetchenhauer & Huang, 2004).

따라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부당함과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 및 동기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적 변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 3.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내·외적 자극의 위협이나 도발로 유발된 분노나 부정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자기-방어적이고 보복적인 반응이다(Dodge & Coie, 1987).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만의 독특한 특징인 상황을 위협적 또는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분노와 보복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Dodge & Coie, 1987).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상황에 대한 적대적 단서의 선택적 부호화 및 해석 편향(Dodge & Coie, 1987)과 분노감 및 보복의 동기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핵심특징과 관련이 있다(Bondü & Krahe, 2015; Schmitt et al., 1995). SeMI 모델에 따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상황의 ‘신뢰할 수 없음’의 단서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황을 적대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ollwitzer et al. 2012). 또한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인식한 상황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더 쉽게 인식하게 해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예방 및 자기-방어 전략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하게 된다(Gollwitzer et al., 2009). 이는 Blair(2012: 박성원, 2017 재인용)가 위협적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자기-방어의 동기에 근거한 행위인 반응적 공격성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덧붙여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인지적 특성인 몰두(Preoccupation)는 부당한 경험에 대해 침습적 사고를 통해 분노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Schmitt et al., 1995). 이러한 분노 상황에서 자기 초점화 된 반추는 분노 감정에 집중하게 하여 강도를 증폭시키거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Bushman et al., 2005;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결과적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상황을 위협 또는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부당한 경험에 대한 반추를 통해 분노감을 유지해 자기-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반응적 공격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와 보복적 동기는 분노가 반응적 공격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Gollwitzer et al., 2009; Higgins & Spiegel, 2004).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ondü와 Krahe(2015)의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은 반응적 공격성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보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거부 민감성과 함께 고려될 때도 유의하였다. 이는 이승연, 이유미, 김엘림(201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응적 공격성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Bondü과 Richter(2016)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과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과의 관련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에서도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 부정적인 행동,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위한 행동 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etchenhauer & Huang, 2004; Gollwitzer et al., 2005; Gollwitzer & Rothmund, 2009).

이상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을수록 부당한 경험에 몰두하게 되고, 상황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로인한 분노감은 상황에 대한 회피 및 보복의 동기가 정당화되어 반응적 공격성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C. 특권분노(entitlement rage)

### 1. 특권분노

특권분노는 자신이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기대에 부합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감정을 의미한다(황선정, 조성호 2015; Grubbs & Exline, 2016). 특권의식은 자기애의 하위요소로서 연구되어왔지만, 분명한 단일요인 또는 더 큰 요인이자 자기애의 구성요소이다(Crowe et al., 2015; Grubbs & Exline, 2016 재인용). 이러한 심리적 특권의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고, 더 많은 자격이 있다고 인식하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감각이다(Campbell, Bonacci, Shelton, Exline, & Bushman, 2004). 심리적 특권의식(psychological entitlement)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요구하는 적격성(deservingness)과 실제 자질이나 성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우대나 보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인식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Campbell et al., 2004). Lessard, Greenberger, Chen과 Farruggia(2011)는 심리적 특권의식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능적 특권의식과 불안정한 자기애적 특권의식의 혼합이라고 하였다. 즉, 특권의식의 부적응적 양상은 자기애적 특권의식이라 볼 수 있다(Ackerman & Donnellan, 2013; Pincus & Lukowitsky, 2009). 자기애적 특권의식인 특권분노는 타인의 거절이나 부적정한 평가에 의해 자기개념이 손상되었을 때 공격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나타내는 특성과 같이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을 보인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박갑제, 임성문, 2013 재인용, Brown, Budzek, & Tamborski, 2009; Pincus & Lukowitsky 2010; Trull & McCrae 2002). 특권분노는 자신의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웅대한 환상이나 자기상을 지니면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처리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응적 전략이다(Dickinson & Pincus, 2003; Kernberg, 1998; Ronningstam, 2005). 이러한 특권분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양육태도에 대한 어린 시절의 박탈된 양육경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본다. Shabad(1993)는 어린 시절의 다양한 정도의 박탈과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 그것을 참거나 당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자극한다(Bishop & Lane, 2002). 특히 이러한 특권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유형의 박탈은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 욕구와 소망을 억압하고, 헌신이나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자아-위협 맥락에서 자기-보

호의 목적으로 발생한다(Grubbs & Exline, 2016). 이러한 강압과 박탈의 결과로 겪는 수치심,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회피책으로 특권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Bishop & Lane, 2002). 즉,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기대에 대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로 특권분노가 야기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권분노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과도한 기대나 자기상과 그것에 대해 충족되거나 수용 받지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하고자 나타나는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는 외부 요인에 취약한 자기상과 정서 통제, 부적응적 대인관계 양상과 같은 다양한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살펴보면 자기애적 특권의식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무기력감, 회피형 애착유형(dismissing attachment)과 관련이 있었다(Campbell et al., 2004; Cooper & Ronningstam, 1992; Pincus et al., 2009). 이는 특권분노가 높은 개인들은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착취하고 고갈시키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문제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 부족, 정서 조절의 어려움, 특성분노, 우울, 분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Ackerman et al., 2013; Grubbs & Exline, 2016; Pincus and Lukowitsky 2010). 이는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쉽게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 결과 나타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부정정서와 함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분노, 불안 등의 휘발성 정서를 쉽게 경험 할 수 있으며, 심리적 고통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권분노의 부적응적 대인관계 양상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마키아벨리즘, 대인관계 갈등과 폭력, 낮은 용서와 높은 공격성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Bushman & Baumeister, 1998; Dickinson & Pincus, 2003; Exline et al., 2004; Konrath et al., 2006; Witte, Callahan & Perez-Lopez, 2002). 이는 특권분노가 높은 개인은 타인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기대나 충족 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폭력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권분노는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을 가진 특권의식이다(양진원, 권석만, 2016). 이는 중요한 타인에 의한 과거의 박탈이나 욕구의 억압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 평가나 충족 되지 않은 기대와 같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취약한 자기상과 함께 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강렬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권분노는 다양한 부적응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애 성향은 공격행위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변인으



로 사용 되어왔다(Konrath et al., 2006). 그 중 취약한 자기상으로 인해 쉽게 강렬한 부정정서를 느낀다는 점과 공격행동과 정적상관임을 고려 할 때, 특권분노가 공격행위나 위협 행동의 발달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변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Grubbs & Exline, 2016; Reidy et al., 2008).

## 2.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 분노

특권분노는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이며,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을 지녔다. 특권분노는 충족되지 못한 기대나 욕구에 대한 보상과 자기 개념의 위협에 대한 방어와 회피과정에서 나타난다(홍초롱, 권석만, 2016). 그렇기에 자기 개념의 위협과 충족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서술한 것처럼,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개인의 불공정, 부당함,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단서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한다(Gollwitzer et al. 2012). 이는 만성적인 자기애적 위협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박탈이나 착취당하는 경험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특권분노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가 직접 관련된 연구는 없으나, 각 변인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 둘 간의 관련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Freud(1916, 1957: bishop & Lane, 2002 재인용)는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경험을 부당한 상해(unjust injury)로 보았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불쾌함을 유발 할 수밖에 없는 일(disagreeable necessity)’에서 면제되어야 하며 예외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당함을 겪었다는 인식은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켰다(Zitek et al., 2010). 즉, 부당한 경험은 특별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분노하게 하고 보상을 주장하거나 불의에 반항하는 것을 정당화한다(Meyer, 1991). 특권분노는 박탈 또는 자신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억압받았던 경험이 부당함으로 인식된 결과, ‘불쾌함을 유발 할 수밖에 없는 일(disagreeable necessity)’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회피동기를 촉진시켜 나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촉발 동기와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당함, 불공정, 신뢰 할 수 없음의 단서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대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인식된 부당함의 부정적인 결과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함의 결과로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bishop & Lane, 2002). 따라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발달은 신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자신의 인식과 타인을 신뢰할 수 없음의 상황적 단서의 일반화 된 조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lwitzer et al., 2013). 결과적으로 두 변인이 박탈과 착취(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회피동기를 뿌리에 두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 결과 회피 동기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의 연관성은 부당함을 경험 했을 때 느끼는 분노와 그로 인한 보복의 동기를 통해 관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Ronningstam(2005)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자기조절불능(dysregulation)’과 자아-위협(ego threat)에서 유발 된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방어적 자기강화 전략이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라 주장하였다(Baumeister et al., 1996). 또한, Schmitt(1995)는 부당함의 피해자로 인식하면 나타나는 질적인 반응으로 분노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해본다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착취나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당함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회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이나 부당함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비대칭적 인식을 유발한다. 이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상황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및 강화 전략으로 특권분노를 경험하게 된다(Moses and Moses-Hrushovski 1990). 즉, “나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겪어선 안 되며, 참을 필요도 없다”는 ‘불쾌함을 유발 할 수밖에 없는 일 (disagreeable necessity)’의 면제에 대해 강한 동기를 갖게 되며, 분노감과 충동적인 보복 욕구를 생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3.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여러 연구들이 반응적 공격성의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위협적인 인식에서 자기-방어의 동기로 보복적인 공격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Crick & Dodge, 1996; Ellis & Tafrate, 1997). 이러한 위협적 인식에서의 충동과 보복에 기반한 공격행동인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특권분노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변인이다(양진원, 권석만,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권분노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 분노, 공격성, 낮은 자존감, 수치심, 사회적 회피, 자살시도를 포함한 다양한 부적응적 요인과 함께 정신병리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nning, Patrick, Blonigen, Hicks, & Iacono, 2005; Dickinson & Pincus, 2003; Kohut & Wolf, 1978; Pincus et al., 2009; Ronningstam, 2005). 그 중 자기애적 특권의식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자기애적 하위특성임을 나타냈다(Pryor, Miller, & Gaughan, 2008). 특권분노는 자기애적 위협, 즉 자신의 기대나 이상적인 자기상의 위협을 느낄 때 폭발적인 분노와 과장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Bailey & Ostrov, 2008).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을 가진 특권분노가 높은 개인은, 외부의 부적 자극이나 관계에 과민한 성향을 보여 낮은 자존감이나 수치심을 쉽게 경험한다(양진원, 권석만, 2016). 이는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내적인 동기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이라고 보았을 때(Crockenberg, 1981; Wilkowski & Robinson, 2010 재인용),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은 강한 수치심을 경험해 자기애적 위협으로 쉽게 인식함과 동시에 분노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Thomaes, Stegge, Olthof, Bushman, & Nezlek, 2011). 이처럼 강렬하게 경험되는 부정정서는 ‘자기애적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적 전략을 사용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강렬한 분노는 보복적인 동기를 가진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이는 Baumeister, Smart와 Boden(1996)은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아상을 위협하는 촉발 사건이나 자극에 의해 수치심, 충동적인 반응으로 공격성을 보인다는 ‘위협된 자기 이론’을 통해 설명하여,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자신의 가치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또는 이상적인 자아상에 대한 위협적인 인식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동기를 가진 특권분노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특권분노는 위협적 상황에 대해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해, 분노와 보복 동기를 가지고 상황에 자기-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강한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탐색과도 이어진다.

## D. 부모화(parentification)

### 1. 부모화

인간으로 태어나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하다(김지민, 현명호, 2017).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과 성숙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전현수, 2013).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 구조는 빠른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 되어왔다(이명진, 최슬기, 2011).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 중 부모의 직장 근무, 이혼 및 별거, 상실 등과 같은 부모의 부재경험은 가족 체계 내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유발해 가족 내 자녀의 역할 변화를 야기한다(박선정, 정규석, 2016). Boszormenyi-Nagy와 Spark(1973: Hooper, 2013 재인용)은 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자녀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지지 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실존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맥락적 가족치료이론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역할 역전인 부모화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김용태, 2000). 부모화는 맥락적 가족치료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부모-자녀 간의 역할이 뒤바뀐 가족 역동으로, 가족 체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Boszormenyi-Nagy, Spark, 1973: 김미화, 김해란, 2017 재인용).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모화 경험을 유교적 문화인 효(孝)의 맥락에서 이해해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의도나 요구에 순응하는 ‘아동의 성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왔다(조은영, 정태연, 2004). 또한 부모-자녀를 하나로 인식하는 강한 동일체감, 서구사회에 비해 자녀의 늦은 독립시기와 같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의 부모화 경험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석미정, 2016; 전혜정 외, 2018). 이와 함께, 자녀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자녀 관계라는 점은 청소년기의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기 부적응의 중요 변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더한다(박진아, 신유림, 이미리, 전연진, 이경숙, 2015; 김보람, 최수미, 2016 재인용).

부모-자녀 간의 역할반전을 말하는 부모화의 원인은 학자들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Session과 Wayne(1986: 박연숙, 2016 재인용)은 기질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부모화가 부모-자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비롯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본 학자들도 있다. Minuchin(1974: 신말숙, 심혜

원, 2017 재인용)은 부모-자녀 간의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 부모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부부 간의 갈등 또는 불안정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주로, 자녀)을 끌어들이어, 부부의 갈등과 불안에 자녀가 정서적 융합상태인 삼각화(triangulation)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자녀의 삼각화는 부모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내면화 할 가능성이 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생긴다(Hooper, 2013). Chase(1999)는 부모가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성인에게 지워진 양육행동이 당연하게 여길 때 부모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부모화는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물리적, 정서적 부모화로 나뉜다(Jurkovic, 1997; Hooper, 2013 재인용). 먼저, 물리적 부모화는 가정이 지탱되기 위해 집안일, 형제 돌보기 등의 필요한 구체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강요받는 것을 말한다(유순화, 2010). 또 다른 유형인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 구성원을 위로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행위,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맞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 된 자녀는 부모와 형제나 자매의 친구, 보호자, 배우자, 때로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가정에서 맡게 된다(Hooper et al., 2011; Jurkovic, 1997). 한편, 부모화 경험이 자녀의 발달 단계에 충족되어야 할 욕구나 행동을 억압하는지, 부모화의 정도나 수행의 범위가 발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 부모화로 나뉘기도 한다(Jurkovic, 1997).

먼저, 적응적인 부모화(adaptive parentification)는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녀의 발달 수준이나 상황에 적합한 책임이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수준의 역할 역전은 가정마다 어느 정도 필연적이며, 대개 기능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적응적인 역할 역전은 자녀의 노력이 인정받고 한정 된 기간에만 발생한다(신말숙, 심혜원, 2017).

Jurkovic, Thirkeild와 Morrel(2001)은 파괴적인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 책임과 역할이 상호호혜적이지 못할 때, 자녀가 불공평함을 경험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파괴적 부모화는 가정을 위해 자녀의 발달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욕구나 행동을 참는 행위, 부적절하고 과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역할을 맡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불공평감을 느꼈을 때 스트레스가 내면화 되면서 나타난다(신말숙, 심혜원, 2017; 조은영, 정태연, 2005). 이러한 파괴적 부모화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 또는 무시하거나, 강박적으로 타인의 욕구에

집착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조은영,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먼저, 부모화 경험은 자아분화나 자아정체감 형성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다(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은 외적으로 보기에 부모나 가족 구성원을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이 적응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렇기에 내면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간과 될 가능성이 높다(박효순, 2014). 그 결과 누적된 부모화 경험은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의 전환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손혜미, 2007). 특히,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원가족인 부모로부터 분리된 자기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확립하며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개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정경연, 심혜숙, 2007).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가족구성원 또는 타인을 강박적으로 배려하는 경험은 상대와의 정서적 융합을 유발하여 적절한 분리(Splitting)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며, 부모화 된 청소년 자녀들은 자아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구경호, 유순화, 2012).

또한 부모화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불안, 수치심, 자기에 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김정민, 이유리, 2010; 전소연, 이정윤, 2012; 강지희, 최명선, 2008). 부모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조건적인 애정과 제한적인 욕구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자녀들은 불공평감을 강하게 느끼고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김정민, 이유리, 2010). 이는 부모화 된 자녀들이 부모와의 정서적인 융합을 겪으면서 부모의 내면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내적 갈등과 억압된 욕구로 인해 우울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지희, 최명선, 2009). 또한 정서적 부모 역할과 불공평을 많이 경험했을 때 불안과 우울이 높다고 나타났다(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박효순, 2014). 이와 함께 부모화 된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기능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아가 부모의 요구가 투사된 조건적인 수용은 자신의 욕구를 외면 또는 억압하게 해 만성적인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다(Gabbard, 2016). 결과적으로, 타인의 반응과 인정에 민감해지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해지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석미정, 2016, Hopper et al., 2011).

마지막으로 부모화 된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문제이다(조연주, 2011).

부모화 된 자녀들은 자신의 욕구를 조건적 수용 또는 억압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타인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관계 손상에 대한 걱정을 한다(강선모, 2015; 홍서운, 2014). 한편 부모화 경험에서 불공평감을 인식한 청소년은 타인을 배려하는데 익숙하지만 자신이 충분히 수용 받지 못할 경우, 좌절, 불신, 분노, 적대감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나 외, 2006; 최옥순, 2016; 홍서운 2014; Chase, 1999). 이와 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낮은 대인관계 수준이나 대인관계 문제 심화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지아, 김완일, 2017; 정해인, 오인수, 2016).

하지만, 부모화의 부정적인 측면의 연구와 달리,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보고 되고 있다. Jukovic(1997)은 부모-자녀의 역할 전이 일시적이고 적합한 수준일 경우, 오히려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강선모(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공감능을 높여 대인관계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역경에 대한 탄력성 증가, 긍정적인 대처기술과 건강한 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iCaccavo, 2006; Hooper, 2007; Tompkins, 2007; 정해인, 오인수, 2016 재인용).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어 부모화 경험은 부모-자녀에게 모두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모든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부적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강선모(2015)의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의 불공평 요인을 따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았을 때, 부모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그 외의 연구에서도 불공평감을 파괴적 부모화의 핵심으로 보았다는 것을 생각 했을 때, 부모화 경험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공평감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김지민, 현명호, 2017; 전현수, 2013). 이는 이화정의 연구(2018)에서 청소년이 부모화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부모화 경험의 결과가 다르게 예측된다는 언급이 뒷받침한다. 즉, 어떤 요인이 부모화 경험을 불공평하게 인식하여, 파괴적 부모화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특권분노, 부모화, 반응적 공격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화 경험의 부적응적 영향을 야기하는 핵심요인은 부모화 경험 과정에서 겪는 불공평감인 것으로 나타났다(Hooper, Wallace, 2010). 즉, 똑같은 부모화 경험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의 역할 반전의 경험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나 요구는 자녀의 입장에서 착취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보인다(Hopper, 2013).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자녀가 부모화 되었을 때,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쉽게 불공평감을 경험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 적대감 등의 부적응을 야기한다고 하였다(안재현 외, 2018). 자세히 살펴보면, 불공평감은 자기가 인식한 자신과 타인이 보는 자신의 불일치를 만들어 그들이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느끼게 한다(박연숙, 2016). 이는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요구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부모화 경험은 착취와 박탈에 기인한 자기애적 위협을 인식해 나타나는 특권분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착취 또는 자기애적 위협의 회피동기로 나타나는 특권분노는 강렬한 분노와 함께 취약한 자존감의 보호를 위해 부적절한 전략도 합리화하여 충동적인 반응으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 및 외현화는 부모화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화 된 자녀들은 갈등이나 좌절경험 상황에서 회피-분산의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정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서적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정해인, 오인수, 2016). 최성환과 최해연(2014)은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청소년기의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파괴적 부모화 경험 과정에서 겪는 수치심과 불공정성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귀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대인관계 부적응을 높인다(박연숙, 2016; 이정숙, 김은경, 2007).

위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파괴적 부모화의 영향인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응적 정서표현양식을 통해 특권분노와 함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특권분노로 인해 나타나는 강렬한 분노와 보복 충동을 강화시키고, 부적절한 방법을 정당화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와 불이익에 민감한 사람이 착취적 상황이라 인식하면, 보복하고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맥락이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구현진, 이수란, 신용환, 손영우, 2016). 특권분노와 부모화 경험 간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없지만, 특권 분노가 부당함과 착취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공평을 경험하는 부모화 경향성이 높을수록 특권분노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화 경험은 특권분노와 관련이 있는 자기애적 성향이나 분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2004; Hooper et al., 2011). 자신의 욕구나 가치를 수용받기 보다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부모화 경험이 반복될 시, 수치감과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권의식이 방어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Bishop & Lane, 2002). 정리해보면 부모화의 영향인 정서조절과 표현의 어려움은 분노를 증폭시키는 한편, 수치심과 불공평함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외부귀인으로 보복의 동기가 일어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불공평감과 같은 착취나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인 부모화 경험이 특권분노의 정서와 동기를 강화시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 부모화,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방어적이고 보복적인 공격행위를 나타낸다(Dodge & Coie, 1987). 즉,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위협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부당함,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단서에 비대칭적 부호화와 적대적 해석을 하는 성격변인인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의 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박영희, 2017).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부당함의 단서에 대한 민감한 인식의 기저에는 부당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착취(이용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당한 경험에 대한 예방적 회피동기가 있다(Gollwitzer et al. 2012; Rotmund et al., 2011).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신뢰할 수 없음’ 또는 부당함에 대한 사소한 단서에도 예방적 동기로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부당한 상황을 회피하려 하며, 회피를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도 정당화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Gollwitzer et al., 2005). 이러한 양상에는 부당함의 단서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해석과 착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회피적 자기 방어 전략인 특권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Bishop & Lane, 2002). 특권 분노는 만성적인 욕구나 기대의 박탈과 억압으로부터 “더 이상 부당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보상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자극한다(Freud, 1916/1957: bishop & Lane, 2002 재인용). 그로 인해 특권분노는 부정적 또는 위협적 자극에 과민해 쉽게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보복욕구를 경험한다(Bobadilla, Wampler & Taylor, 2012). 그 결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강렬한 분노를 경험하고, 위협에 대한 방어와 부적응적이고 충동적인 대처전략인 보복전략으로 반응적 공격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특권분노와 상호작용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맥락인 부모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간의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부모-자녀의 역할반전인 부모화는 개인의 욕구와 표

현을 억압하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등을 뜻한다(Jurkovic, 1997).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기능이나 상황보다 과도한 수준일 때,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예시켜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다(전소연, 이정윤, 2012).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공평함을 통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화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 부적응적 정서표현은 특권분노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분노와 보복 동기 및 충동을 강화시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특권분노는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 분노, 반응적 공격성이 각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이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네 변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권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특권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 부모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효과를 부모화가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이후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2-1041055-AB-N-01-2019-37). 연구의 대상은 G시와 J도 소재의 중학교와 청소년 기관의 14-16세 남녀 청소년으로 하였다. 연구 설문은 연구의 목적과 자발적 동의 및 거부와 포기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연구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86부가 사용 되었다. 이 중 남성 응답자가 249명(51.2%)이었고, 여성 응답자는 237명(48.8%)이었다. 연령은 14세가 135명(30.5%), 15세가 138명(30.7%), 16세가 185명(38.9%)이었다.

#### B. 측정도구

##### 1. 정의민감성 척도 (Justice Sensitivity Scale)

Schmitt, Gollwitzer, Maes와 Arbach(2005)이 개발한 성인용 정의민감성 척도를 Bondu와 Elsner(2015)가 아동·청소년용으로 수정하고 타당화 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의민감성의 세 가지 핵심특성인 정서적 반응(예, 분노), 지각된 압박감(예, 참을 수 없음), 사고의 침입성(예, 오래도록 생각함)이 문항에 반영되며, 관점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정의민감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승연 외, 2018).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하위척도 5문항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영어에 능통한 심리학과 석사생 1명과 본 연구의 연구자가 이중 역번역을 통해 번역한 뒤 사용하였다.

피해자 정의민감성 척도는 자신이 부당함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예, 나는 타인이 나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상황을 쉽게 참을 수 없다)를 측정하며, 6점 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케 한다. 5문항 총합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Bondu와 Elsner(2015)의 9-17세 독일 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8였으며 이승연, 이유미, 김엘림(2018)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83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피해자 정의민감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문항 수	내적 합치도
피해자 정의민감성	1, 2, 3, 4, 5	5	.815

## 2. 또래 갈등 척도 (Peer Conflicts Scale)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와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 PCS)를 한영경 외(2008)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공격성의 유형과 기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10개 문항마다 다른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척도 각각 10문항, 총 20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항마다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그렇지 않다(0점)부터 확실히 그렇다(3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한영경(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은 .87,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반응적 공격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문항 수	내적 합치도
반응적 외현 공격성	1,4,6,7,9,11,13,14,17,18	10	.873
반응적 관계 공격성	2,3,5,8,10,12,15,16,19,20	10	.879
전 체	1-20	20	.923

### 3.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Pincus 등(2009)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기반으로 양진원(2012)이 변안하고, 국내 타당화한 척도에서 특권분노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PNI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0점 ‘전혀 나 같지 않다’에서 5점 ‘매우 나 같다’까지 6개의 점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기존의 자기에 척도는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제한된 설명력을 가지며, 광범위한 구성요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Baumeister et al., 2000; Konrath et al., 2006; Twenge & Campbell, 2003). 이는 특정 하위요인 측정에 어려움과 경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에 척도의 총 점수로만 사용되어 왔던 것과 맞닿아 있다. 특히 자기에적 특권의식에 관련하여 기존 척도들이 준거 타당도를 측정할 때 병리적 결과와 일관된 연관성을 입증함에도(Ackerman et al., 2011), 요인구조와 내적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Kubarych, Deary & Austin, 2004; Grubbs et al., 2013년 재인용). 덧붙여 이러한 척도의 문제는 척도들이 자기에의 정상적 상태와 병리적 상태를 혼합하여 보기에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도 한 몫 한다(Lessard et al. 2011). 이러한 제한점을 보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기에적 특권의식의 병리적인 양상을 측정하며, 내적일관성이 보장 되어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권분노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자기에 요인 중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접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incus 등(2009)의 원판 PNI는 변동하는 자존감, 착취, 특권분노,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자기 숨김, 자기희생/자기고양,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양진원(2012)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결과, 변동하는 자존감, 착취, 특권분노,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자기 희생/자기 고양으로,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이 불안정하게 여겨져, 6개로 묶어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었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므로 6요인으로 최종 결정하였다(양진원, 권석만, 2016). 또한 해당요인은 ‘나는 비판 받을 때 화가 난다.’ 등의 자신의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타인보다 웅대한 자기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는 특권의식, 타인의 평가나 위협적 인식에 불안정한 정서적 취약성의 특징을 담아, 특권분노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의 요인구조를 사용하여 특권분노를 평가 할 계획이다.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박갑제와 임성문의 연구(2013)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였으며, 박다원(2015)연구에서는 .79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특권분노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문항 수	내적 합치도
특권분노	1, 2, 3, 4, 5	5	.79

#### 4. 자녀의무 척도- 청소년용(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Kuperninc과 Casey(2000)가 개발한 자녀의무척도-청소년용(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FRS-Y)을 이정숙과 김은경(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FRS-Y는 청소년을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물리적 부모화(12문항), 정서적 부모화(9문항), 불공평(13문항)의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총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정숙과 김은경(200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1-.85였으며, 이화정(2018)의 연구에서는 .68-.83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화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문항 수	내적 합치도
물리적 부모화	1, 4, 9, 12, 15, 18, 21, 22, 26, 27, 32, 33	12	.712
정서적 부모화	2, 5, 10, 14, 16, 19, 20, 28, 30	9	.673
불공평	3, 6, 7, 8, 11, 13, 17*, 23, 24, 25, 29, 31, 34*	13	.782
전 체	1- 34	34	.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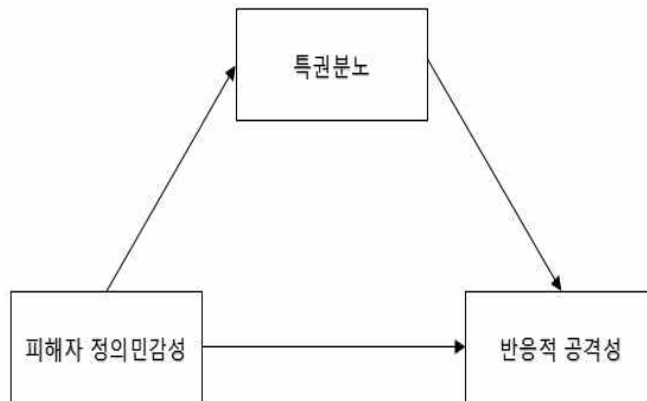
## C.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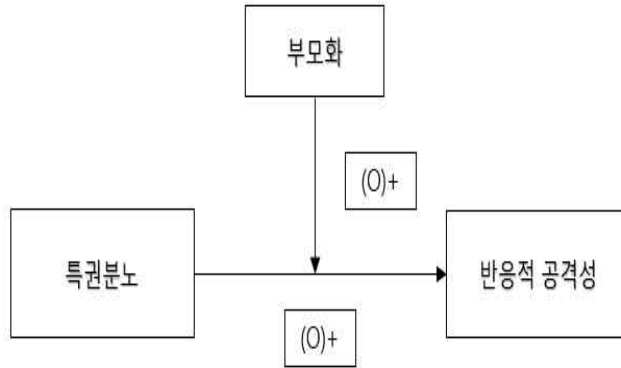
연구문제 1.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권분노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연구문제 2.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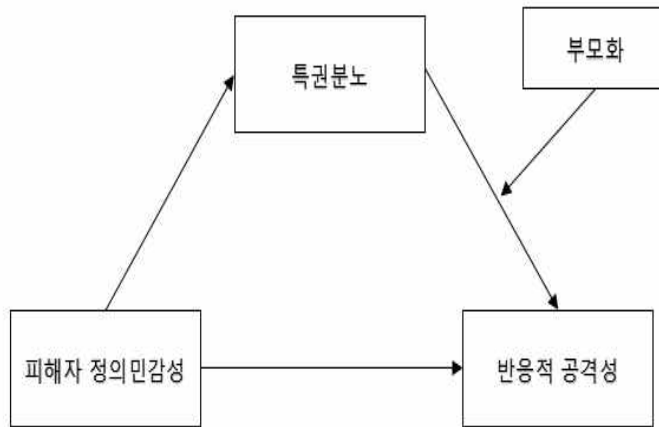
연구문제 3.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화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림 3] 연구문제 1 모형



[그림 4] 연구문제 2 모형



[그림 5] 연구문제 3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 부모화,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와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와 부모화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D.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와 SPSS Macro PROCESS v3.4를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의 정규성과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를 사용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대규모의 가상의 무선 표본을 만들어 매개(또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기법으로 Sobel test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hrout & Bolger, 2002).

넷째,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2$ 을 확인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f^2$ 값은  $R^2$ 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델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Kenny(2011)는 조절효과의 크기의 현실적인 표준이 .005는 작음(small), .01은 보통(medium), .025는 큼(large)라고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조절효과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화의 조절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건부효과의 유의한 영역을 변인의 연속선상에서 구별해주는 존슨-나이만 기법을 사용해 부모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Hayes, 2013).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한지 확인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SPSS Macro의 Model 14를 적용하여 부모화 경험이 투입된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확인과 더불어 매개과정이 조절변인의 투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IV. 연구 결과

### A.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Kline, 2015; 선민혁, 2019 재인용).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특권 분노( $r=.660$ ,  $p<.01$ ), 부모화( $r=.170$ ,  $p<.01$ ), 반응적 공격성( $r=.319$ ,  $p<.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냈다. 특권분노는 부모화( $r=.164$ ,  $p<.01$ ), 반응적 공격성( $r=.462$ ,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부모화( $r=.262$ ,  $p<.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써, 주요변인 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3-1	3-2	4	4-1	4-2	4-3
1. 피해자 정의민감성	-								
2. 특권분노	.660**	-							
3. 반응적 공격성	.319**	.462**	-						
3-1. 반응적 외현 공격성	.261**	.302**	.920**	-					
3-2. 반응적 관계 공격성	.325**	.363**	.914**	.681**	-				
4. 부모화	.170**	.164**	.262**	.237**	.243**	-			
4-1. 물리적 부모화	.087	.113**	.179**	.143**	.185**	.841**	-		
4-2. 정서적 부모화	.192**	.157**	.251**	.206**	.255**	.792**	.606**	-	
4-3. 불공평감	.149**	.136**	.221**	.230**	.173**	.823**	.482**	.445**	-
M	12.40	9.07	26.77	13.35	13.41	57.64	19.89	17.02	20.73
SD	5.24	4.43	7.71	4.28	4.13	11.61	4.77	3.83	5.55
왜도	.15	.31	2.25	2.33	2.29	.67	.54	.59	1.05
첨도	-.61	.11	7.33	7.06	6.83	-.06	-.31	.54	.92

\* $p < .05$ , \*\* $p < .01$

## B. 매개효과 검증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특권분노가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beta=.319, p<.001$ )과 2단계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에 미치는 영향( $\beta=.660,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 보다 감소하고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beta=.142, p<.05$ ). 또한 특권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beta=.269, p<.001$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특권분노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N=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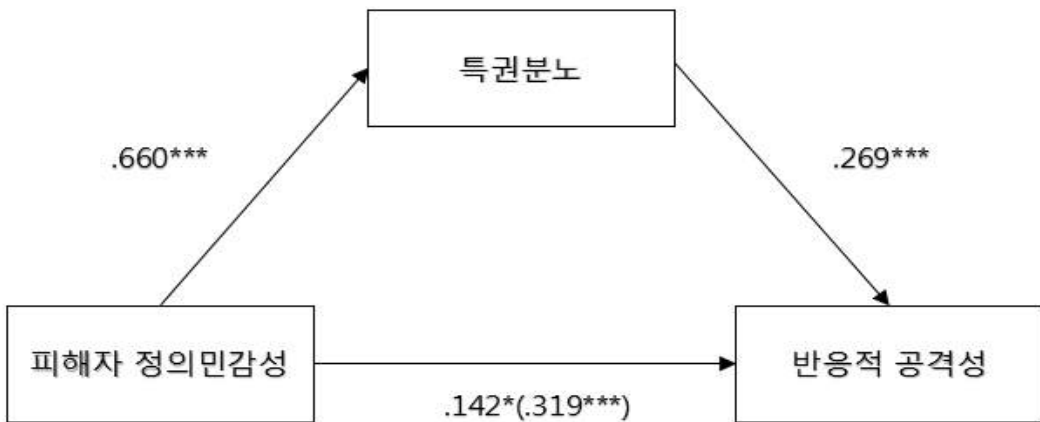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beta$	t	R <sup>2</sup>	F
1	피해자 정의민감성	반응적 공격성	.470 (.063)	.319	7.42***	.102	54.98***
2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	.557 (.029)	.660	19.31***	.435	372.76***
3	피해자 정의민감성	반응적 공격성	.209 (.082)	.142	2.54*	.143	40.22***
		특권분노	.468 (.098)	.269	4.79***		

\* $p<.05$ , \*\* $p<.01$  \*\*\* $p<.001$

<표 7>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특권분노	Effect	SE	95% CI	
			LLCI	ULCI
	.261	.073	.128	.415

이어서, 특권분노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구하였다(Hayes, 2013). 분석 결과, <표 7>을 살펴보면 간접 계수 효과는 .261이었으며,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128과 .415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볼 수 있다. 즉,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을수록 특권분노의 수준이 높아져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개 변인인 특권분노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동시에 특권분노에 대한 설명 없이도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1단계에서 나타난 수치임

[그림 6]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 C. 조절효과 검증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 West, & Reno(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 특권분노의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R^2$ 값은 .131으로, 모형의 13.1%( $F=73.17, p<.001$ )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2단계, 조절변수인 부모화를 투입한 결과  $R^2$ 값은 .173으로 모형 2의 17.3%의 설명량( $F=50.65, p<.001$ )을 보였다. 모형 2에서 부모화의 설명량은 모형 1에 비해 4.2%증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권분노와 부모화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3단계의  $R^2$ 값은 .186으로 전체 설명량은 18.6%( $F=36.67, p<.05$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 $\Delta R^2=0.12$ )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권분노는 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eta=.362, p<.001$ ), 또한 부모화가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beta=.208, p<.001$ ). 이 때, 특권분노와 부모화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637, p<.05$ ). 다시 말해, 부모화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특권분노의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7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표 8.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 (N= 458)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인 : 반응적 공격성				
		B	$\beta$	t	$R^2(\Delta R^2)$	F
1단계	특권분노	.628	.362	8.55***	.131	73.17***
2단계	특권분노	.588	.328	7.83***	.173 (.042)	50.65***
	부모화	.124	.208	4.95***		
3단계	특권분노(A)	-.389	-.224	-1.07	.186 (.012)	36.67***
	부모화(B)	-.009	-.013	-.01		
	A×B	.016	.637	2.71***		

\* $p<.05$ , \*\* $p<.01$ , \*\*\* $p<.001$

하지만, Hayes(2013)는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만 보여주고 조절변수(M)의 전체영역 중 어느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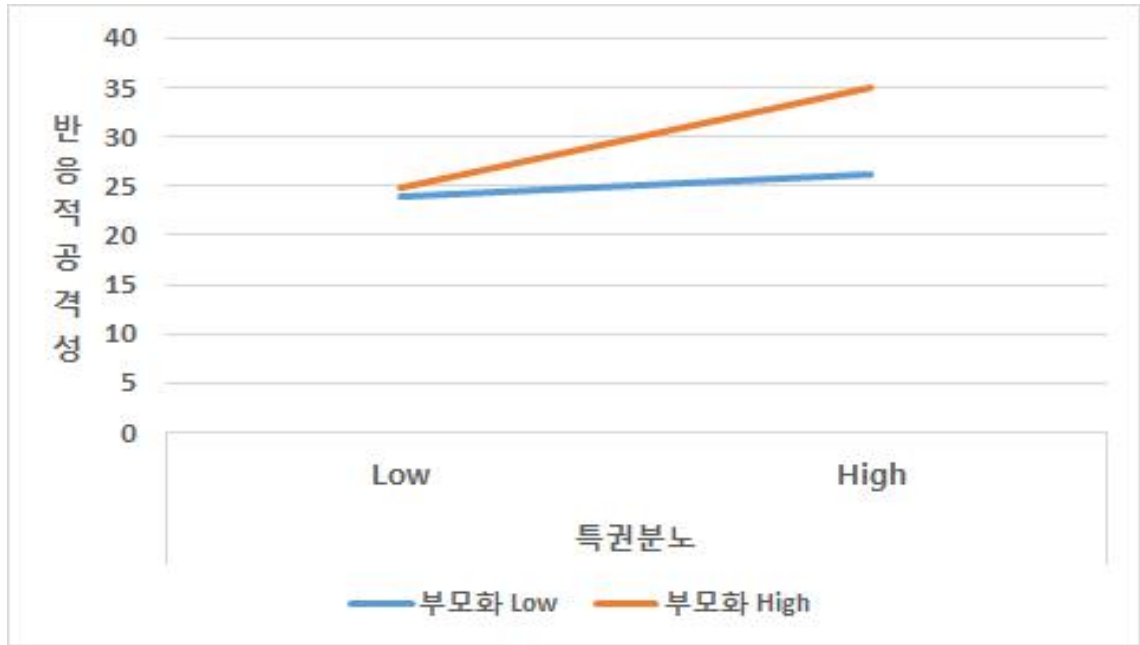
본 연구는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Aiken, West, & Reno(1991)가 제안한 방식을 따랐다. 부모화의 평균값과  $\pm 1SD$ 값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특권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통해 부모화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기울기 분석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의 유의성과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호작용 효과 탐색을 위해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단순 기울기 분석은 위해 조절변인을 자의적으로 일부 특정값(M,  $M \pm 1SD$ )을 지정하여 살펴본다는 점과 동시에 조절변인의 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Hayes, 2013). 존슨-네이만 기법은 통해 특권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구별해줄 수 있다.

먼저 단순 기울기 분석에 따라 살펴본 조절효과는 평균값과  $\pm 1SD$  값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지만, 그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부모화 수준이 낮은 집단( $b=.366, p<.001$ )과 높은 집단( $b=.748, p<.001$ ) 모두 조절효과가 유의했지만,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경우 반응적 공격의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권분노 수준이 낮아도 부모화 수준이 높다면 반응적 공격성의 경향을 증가시키는 강화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부모화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조절변인	Effect	SE	t	95% CI	
				LLCI	ULCI
-1 SD	.366	.105	3.49***	.160	.573
부모화 M	.557	.073	7.66***	.414	.700
+1 SD	.748	.097	7.68***	.557	.939



[그림 7]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 그래프

이어서, 구체적으로 부모화가 어떠한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나타내는지 존슨-나이만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존슨-나이만 기법을 사용해 유의한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부모화 평균점수가 41.05점 이상인 구간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40점미만 구간에서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기에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화 수준이 낮은 경우(40점미만)에는 특권분노 수준의 증가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증가가 유의한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일정한 비율로 유지됨을 뜻한다.



<표 10> 부모화의 평균점수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부모화 평균점수	비 표준화된 조절효과	SE	t	p	95% CI	
					LLCI	ULCI
38.00	.235	.144	1.630	.104	-.048	.517
39.82	.264	.135	1.965	.500	.000	.529
41.05	.285	.128	2.22	.027	.032	.537
44.10	.335	.114	2.947	.003	.112	.558
47.15	.385	.100	3.846	.001	.188	.582
50.20	.435	.088	4.921	.00	.261	.609
53.25	.485	.079	6.117	.00	.329	.641
56.30	.535	.074	7.250	.00	.390	.680
59.35	.585	.073	8.045	.00	.442	.728
62.40	.635	.076	8.334	.00	.486	.785
65.45	.686	.084	8.182	.00	.521	.850
68.50	.734	.094	7.795	.00	.550	.921
71.55	.786	.107	7.335	.00	.575	.996
74.60	.836	.121	6.887	.00	.597	1.074
77.65	.886	.137	6.485	.00	.617	1.154
80.70	.936	.152	6.135	.00	.636	1.236
83.75	.986	.169	5.834	.00	.654	1.318
86.80	1.036	.186	5.574	.00	.671	1.401
89.85	1.086	.203	5.350	.00	.687	1.484
92.90	1.136	.220	5.157	.00	.703	1.569
95.95	1.186	.238	4.988	.00	.719	1.653
99.00	1.237	.256	4.839	.00	.734	1.738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조절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 D.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가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Muller, Judd, & Yzerbyt, 2005; 최용석, 2019 재인용). 즉, 조절변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독립변수의 직접 효과가 아닌 매개변수를 통한 독립변수의 간접효과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정선호, 서동기, 2016). 이에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부모화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9, p=.130$ ).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반응적 공격성				
		<i>B</i>	$\beta$	<i>t</i>	$R^2(\Delta R^2)$	<i>F</i>
1단계	피해자 정의민감성	.470	.319	7.415***	.102	54.982***
2단계	피해자 정의민감성	.416	.283	6.634***	.146	41.365***
	부모화	.142	.213	5.002***	(.044)	
3단계	피해자 정의민감성(A)	-.049	-.033	-.155	.150	28.419***
	부모화(B)	.041	.062	.567	(.004)	
	A×B	.008	.379	1.518		

\*\*\* $p < .001$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와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검증했기에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3인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yes(2013)의 방법을 적용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구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12>와 같다. Hayes(2013)은 간접효과가 조절효과 수준에 따

라 달라지는 것만으로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분석결과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006과 .0191로 0이 포함되지 않아 부모화의 조절효과를 통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검증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09	.005	.0006	.0191

구체적인 조절된 매개모형의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557, p<.001$ ). 특권분노와 부모화의 상호작용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b=.016, p<.001$ ).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화 수준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의 수준 또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 특권분노				
	<i>b</i>	<i>SE</i>	<i>t</i>	LLCI	ULCI
(상수)	2.161	.389	5.562***	1.398	2.924
피해자 정의민감성	.557	.029	19.307***	.500	.614
	종속변인 : 반응적 공격성				
	<i>b</i>	<i>SE</i>	<i>t</i>	LLCI	ULCI
(상수)	21.287	3.537	6.019***	14.338	28.236
피해자 정의민감성	.172	.080	2.138*	.014	.330
특권분노	-.505	.364	-1.386	-1.221	.211
부모화	-.011	.061	-.1828	-.130	.108
특권분노×부모화	.016	.006	2.675**	.004	.028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은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를 부모화의 수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화의 수준(하한값, 평균, 상한값)의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부모화 값이 커질수록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부모화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부모화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의 유의성 검증

조절변인	Effect	SE	t	95% CI		
				LLCI	ULCI	
부모화	-1 SD	.238	.121	1.973	.001	.475
	M	.425	.095	4.466	.238	.612
	+ 1 SD	.613	.116	5.291	.385	.840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와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 부모화, 반응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어서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위의 연구 가설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직접효과와 특권분노를 통한 간접효과 모두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이 부당하다고 쉽게 인식하는 것(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적대적이고 충동적인 공격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방어적 회피 동기에 기인한 강렬한 분노감과 보복의 동기를 경험하게 해 반응적 공격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Bondü & Krahé, 2015; Bondü & Richter, 2016; 이승연 외, 2018).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가 적대적이고 반응적인 공격성을 잘 예측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Reidy et al., 2008). 이와 함께 상황을 위협 또는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상황회피 및 자기방어의 동기로 분노를 경험하게 해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영, 이승연, 이유미(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련을 명확히 인식하기엔 연구결과가 부족하거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변인에 대한 폭 넓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었다(Bondü, 2018; Bondü, & Krahé, 2015; 이승연 외, 2018), 또한 선행연구는 공격성, 폭력의 동기요인으로서 자기애적 성향이 광범위한 변인이라는 점을 언급했었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이에 본 연구에선 개인 내적 변인인 특권분노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을수록 특권분노를 매개하여 반응적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착

취, 부당함의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하여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특권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화 수준에 따라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수준이 낮을 때에도 특권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지만, 부모화 수준이 높을 때 특권분노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컸다. 이는 부모화가 특권분노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화와 반응적 공격성의 구체적 관계를 다뤘던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각각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가 공격성과 같은 외재화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하나 외, 2006; Merikangas, Dierker, & Szatmarie, 1998; Linda, Monique, Karin, Clemens, & Cilia, 2017 재인용). 또한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부적응적인 정서표현양식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모습이다(문소희 외, 2014; 정해인, 오인수, 2016). 즉 부모화가 높은 자녀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불공평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나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자주 희생하고 억압하기에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적절한 정서조절 양식을 발달시키지 못해,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절한 정서표현을 보여 갈등처리에 미숙함을 겪는다. 이는 부모화가 특권분노의 착취나 수치심에 대한 회피동기를 더 강하게 자극시킴과 동시에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절한 정서표현 양식을 유발하여 반응적 공격성의 발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 수준에 따라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특권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모화가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화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영향력이 달라졌으며, 부모화는 특권분노에 의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주된 정서가 분노라는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지각하거나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우 원인을 외부 귀인해 타인을 탓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이정숙, 김은경, 2007; 한민, 류승아, 2018). 덧붙여, 공평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불일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해석이 회피의 방어기제를 발달시키고, 부모화로 인한 수치심이 자기-방어적 공격성인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박연숙(2016)의 부모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해당연구는 부모화 수준이 높은 중학생이 현실과 이상간의 차이로 불안을 경험했을 때 지각에 대한 왜곡과 부인의 방어기제를 발달시켜 낮은 자존감과 내적 수치심을 관계에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각각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시기이다(Barker et., al, 2006; Bondü & Elsner, 2015). 이러한 증가는 청소년기의 특유의 자아중심성(Elkind, 1978: 송명자, 2008)으로 인해 부당함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또래관계에서 적대적인 인식이나 반응을 통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대인관계 확장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은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어떠한 내적기제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양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대, 공격성 등의 폭력문헌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성이라는 자기에 성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수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특성인 특권분노를 사용하여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자기에적 특권의식이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한 자기에의 하위특성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다(Reidy et al., 2008). 덧붙여 분노 수준에 따라 다 똑같은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격의 근원이 분노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Archer, 2004; Buss & Perry, 1992).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 아닌, 착취나 부당함에 대한 방어기제를 포함하는 자기에적 특권의식에 기인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환경 요인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이제껏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는 외상, 학대라는 주제로 제한되어 있었다(권민정, 박주희, 2015; 박인구, 한기백, 2014). 이는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개인 특성에 집중해 살펴보아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기의 정신병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한국의 가족체계 특성인 부모-자녀 간의 강한 동일체감, 자녀들의 늦은 독립시기,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의 가족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고려해 부모화를

선택하였다. 또한 부모화의 영향인 대인관계에서의 불공평감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 수치심, 불신, 분노, 정서인식 및 조절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모화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외재화 문제의 한 유형으로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었지만, 부모화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개인의 특성과 내적 기제도 중요하지만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 체계 내에서의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역할이나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내담자의 반응적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개인의 문제에서만 살펴보기보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평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는 가족 내의 역동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남겨 부모교육 병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상담자는 부모화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기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가족 체계 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수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다루어 주는 접근이 이들의 상담 및 치료 전략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 부모화 등, 사회적 흐름인 공정, 부당함, 불공평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인식이 자기-방어적 동기에 기인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대다수의 예방과 개입은 사회 기술훈련 또는 정서 관련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본 연구는 개인의 공정성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뤄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기에 반응적 공격성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는 데 제한된 설명력을 보인다. 그렇기에 비행청소년 또는 폭력(또는 공격성)으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같은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특권분노와 함께 불공평감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변인인 부모화를 통해 공정성,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자기애적 특권의식에 기인한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설



명하는데 원거리 변인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공정성과 부당함에 기인해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으나, 그 사이의 변인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모화라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부모화 연구가 진행된 것과 달리, 해외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가 심각한 신체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부모화를 연구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일반 청소년 대상은 부모화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으로만 살펴본 것일 수 있다(Jurkovic & Casey, 2000; Kuperminc et al., 2013; Titzmann, 2012; 석미정, 2016 재인용).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한 모습과 실제 모습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측정도구가 연구대상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연구 가설의 검증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연구나 대상에 대한 평정자 척도를 별도로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 J도의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09-3431.
- 강선모 (2015).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65-283.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장지희, 최명선 (2009).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영향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6, 121-138.
-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 (parentification)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 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1-47.
- 교육부 (2018).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e.go.kr/>에서 자료 얻음.
-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2776.
- 구현진, 이수란, 신용환, 손영우 (2016). 마키아벨리즘과 긍정적·부정적 호혜성 간의 관계: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23-39.
- 권민정, 박주희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Korean J. of Child Studies**, 36(4), 71-89.
- 김미화, 김해란 (2017).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및 완벽주의와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15(4), 43-53.
- 김보람, 최수미. (2016).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97-914
-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개념과 방법들. 서울: 학지사
- 김정민, 이유리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26.
- 김주영 (2018). "범죄에 나이가 어딴나"... 들끓는 '소년법 폐지' 여론.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3001365>에서 자료 얻음.
- 김지경 (2015). 불의 (injustice) 대한 대응방식과 민감성의 차이. **한국부패학회보**, 20,

1-15.

- 김지민, 현명호 (2017). 심리적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1), 123-139.
- 김지연 (2018). 욱하고 던지고 욱하고...혹시 나도 분노조절장애?. 세계일보.  
<https://m.segye.com/view/20180608006420>에서 자료 얻음.
- 문소희, 유순화, 윤경미 (2014). 지각된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105-128.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  
 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 박다원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  
 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정, 정규석 (2016). 부모상실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가족탄력성, 의도적 반추,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115-140.
- 박성원, 전선영, 박수현 (2017).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20-32.
- 박신원 (2016). 사회적 거절경험이 반응적 전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정세상  
 신념과 불공정세상 신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숙 (2016). 부모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 상담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희 (2017). 초기 청소년의 적대적 귀인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  
 제, 분노반추,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박인구, 한기백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  
 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375-397.
- 박지아, 김완일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127-153.
- 박효순 (2014). 부모화된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를 돕기 위한 보웬적 가족치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2**(1), 29-52.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석미정 (2016).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53-75.
- 선민혁 (2019). 정서 반응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 부정긴급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미 (2007). **부부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부모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송명자 (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말숙, 심혜원 (2017). 부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61-80.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 (2018). 청소년 부모화 경험이 자아분화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18**. **13**(2), 19-32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215-242.
- 유순화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0),

233-252.

- 이명진, 최슬기 (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연, 이유미, 김엘림 (2018).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143-165.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2, 1-26.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이정숙, 김은경 (2007).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의식정서가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 27-44.
-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김경미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이호분 (2019). [이호분의 아이들 세상]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5679&code=61171911&cp=nv>에서 자료 얻음.
- 이화정 (2018). **한국판 청소년용 부모화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 척도(K-PANOC-YC)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식 (2019). 청소년 폭력의 압도적인 이유, 뒷담화에 대하여. 정신의학신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95>.에서 자료 얻음.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전소연, 이정윤 (2012).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3(1), 185-200.
- 전현수 (2013). **심리적 부모화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정, 박진희, 이수영, 최영미, 김명희, 천성문 (2018). 청소년의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9, 431-457.
- 정경연, 심혜숙 (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6), 119-133.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유선 (2018).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 정서조절 능력과 부적정서 및 상태분노 : 성취실패와 대인관계 거절 위협 상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 정해인, 오인수 (2016). 청소년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2), 259-277
- 조연주 (201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돌 (2017). 부산 여중생 폭행가해자 ‘보폭 폭행’ 시인...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5010002268> 에서 자료 얻음.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 (Emerging Adulthood) 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 정책에 대한 소고 (小考).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천주명, 임영진 (2017).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반응적 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2), 71-87.
- 최민우 (2017).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5035&code=61121111&cp=ny> 에서 자료 얻음.

- 최성환, 최해연 (2014).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833-855.
- 최소영, 이승연, 이유미 (2019).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분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3), 197-224.
- 최영임, 임정섭, 김교현 (2018). 애착 및 갈등조절능력이 대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7), 1-31.
- 최옥순 (2016). **부모화와 부정적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배려심의 조절효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석 (2019). **자기애가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와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18).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실행기능을 매개로. **발달지원연구**, **7**(2), 73-86
- 한민, 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서운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1**(12), 73-95.
- 홍초롱,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45-161.
- 홍혜미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열등감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5). 병리적 자기애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75-303.
- Ackerman, R. A., & Donnellan, M. B. (2013). Evaluating self-report measure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4), 460-474.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Academic Press.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Archer, J., & Coyne, S. M. (2005). An integrated review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3), 212-23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Axelrod, R. (1986). An evolutionary approach to nor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095-1111.
- Back, M. D., Kufner, A. C., Dufner, M., Gerlach, T. M., Rauthmann, J. F., & Denissen, J. J. (2013).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Disentangling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6), 1013.
-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713-722.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entice-hall.
- Barker, E. D., Tremblay, R. E., Nagin, D. S., Vitaro, F., & Lacourse, E. (2006). Development of male proactive and reactive physic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83-79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
- Baumert, A., & Schmitt, M. (2009). Justice sensitiv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ituation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1), 6-12.
- Baumert, A., Beierlein, C., Schmitt, M., Kemper, C. J., Kovaleva, A., Liebig, S., & Rammstedt, B. (2014). Measuring four perspectives of justice sensitivity with two items e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3), 380-390.
- Baumert, A., Gollwitzer, M., Staubach, M., & Schmitt, M. (2011). Justice sensitivity and the processing of justice related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5*(5), 386-397.
- Baumert, A., Otto, K., Thomas, N., Bobocel, D. R., & Schmitt, M. (2012). Processing of unjust and just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memory performance related to dispositional victim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2), 99-110.
- Benning, S. D., Patrick, C. J., Blonigen, D. M., Hicks, B. M., & Iacono, W. G. (2005). Estimating facets of psychopathy from normal personality traits: A step toward communit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sessment*, *12*(1), 3-18.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
- Bishop, J., & Lane, R. C. (2002). The dynamics and dangers of entitlement. *Psychoanalytic Psychology*, *19*(4), 739.
- Blais, J., Solodukhin, E., & Forth, A. E. (2014). A meta-analysi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instrumental versus reactive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7), 797-821.
- Bobadilla, L., Wampler, M., & Taylor, J. (201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physiological and personality profi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1*(5), 458-487.
- Bondü, R. (2018). Is bad intent negligible? Linking victim justice sensitivi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4*(5), 442-450.

- Bondü, R., & Elsner, B. (2015). Justice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24*(2), 420-441.
- Bondü, R., & Krahé, B. (2015).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 Bondü, R., & Richter, P. (2016). Link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adults to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y of Violence, 6*(2), 292.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Lavoie, F.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redictions to physical violence in different contex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aregiv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4), 293-304.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 (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7), 951-96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Byng 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Byng Hall, J. (2008).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fulfilling parental rol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30*(2), 147-162.
- Calkins, S. D., & Dedmon, S. E. (2000).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regulation in two-year-old children with aggressive/destructiv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03-118.
- Campbell, W. K., Bonacci, A. M., Shelton, J., Exline, J. J., & Bushman, B. J. (2004).

- Psychological entitlement: Interpersonal consequences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1), 29-45.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66-480.
- Chase, N. D. (E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Sage.
- Chen, P., Coccaro, E. F., Lee, R., & Jacobson, K. C. (2012). Moderating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associations betwee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dult agg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42(6), 1293-1304.
- Cicchetti, D., Ackerman, B. P., & Izard, C. E.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1-10.
- Coccaro, E. F., Lee, R., & McCloskey, M. S. (2014).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ggression, anger, impulsivity, and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Aggressive Behavior*, 40(6), 526-536.
- Coccaro, E. F., Schmidt, C. A., Samuels, J. F., & Nestadt, G. (2004). Lifetime and 1-month prevalence rates of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n a community sampl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 Cosmides, L., Tooby, J., & Barkow, J. H. (Eds.). (1992).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
- De Cremer, D. (1999). Trust and fear of exploitation in a public goods dilemma. *Current Psychology*, 18(2), 153-163.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Earls court Symposium on Childhood Aggression, Jun, 1988, Toronto, ON, Canad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
- Dodge, K. A., & Crick, N. R. (1990).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1), 8-22.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5), 1289-1309.
- Dubow, E. F., Huesmann, L. R., Boxer, P., & Smith, C. (2016). Childhood and adolesce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violence in adulthoo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26-31.
- Ellis, A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Secaucus.
- Exline, J. J., Baumeister, R. F., Bushman, B. J., Campbell, W. K., & Finkel, E. J. (2004). Too proud to let go: narcissistic entitlement as a barrier to

-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894.
- Faccenda, L., Pantalón, N., & Reynes, E. (2009).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cer players' moral functioning from components of contextual injustice, sensitivity to injustice and moral atmosphere. *Social Justice Research*, 22(4), 399.
- Fetchenhauer, D., & Huang, X. (2004). Justice sensitivity and distributive decisions in experimental ga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5), 1015-1029.
- Fite, P. J., Rubens, S. L., Preddy, T. M., Raine, A., & Pardini, D. A. (2014).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mal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40(1), 69-78.
- Ford, J. D., Fraleigh, L. A., Albert, D. B., & Connor, D. F. (2010). Child abus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hyporesponsivity among psychiatrically impair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4(7), 507-515.
- Fox, S., & Spector, P. E. (1999). A model of work frustration - aggress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6), 915-931.
- Gabbard, G. O. (2016). Boundaries and boundary violations in psychoanalysis. American Psychiatric Pub.
- Gardner, K. J., Archer, J., & Jackson, S. (2012). Does maladaptive cop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5), 403-413.
- Gollwitzer, M., & Rothmund, T. (2009). When the need to trust results in unethical behavior: 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thical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135-152.
- Gollwitzer, M., & Rothmund, T. (2011). What exactly are victim-sensitive persons sensitive to?.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5), 448-455.
- Gollwitzer, M., Rothmund, T., & Süssenbach, P. (2013). 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 Basic assumptions, recent findings, and potential avenues for future researc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7), 415-426.

- Gollwitzer, M., Rothmund, T., Alt, B., & Jekel, M. (2012). Victim sensitivity and the accuracy of social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8), 975-984.
- Gollwitzer, M., Rothmund, T., Pfeiffer, A., & Ensenbach, C. (2009). Why and when justice sensitivity leads to pro-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999-1005.
- Gollwitzer, M., Schmitt, M., Schalke, R., Maes, J., & Baer, A. (2005). Asymmetrical effects of justice sensitivity perspectives on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Justice Research, 18*(2), 183-201.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731.
- Grant, J. E., & Won, S. K. (2007).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comorbidity of pyromania.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8*(11), 1717-1722.
- Grubbs, J. B. & Exline, J. J. (2016). Trait entitlement: A cognitive-personality source of vulnerability to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Bulletin, 142*(11), 1204.
- Grubbs, J. B., Exline, J. J., & Campbell, W. K. (2013). I deserve better and god knows it! Psychological entitlement as a robust predictor of anger at God.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5*(3), 192.
- Harvey, P., & Harris, K. J. (2010). Frustration-based outcomes of entitlement and the influence of supervisor communication. *Human Relations, 63*(11), 1639-1660.
- Harvey, P. & Martinko, M. J. (200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attributions in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its outcom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30*(4), 459-476.
- Hayes, F. A. (2013). PROCESS macro 를 이용한 매개분석 ·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편역). 경기: 신영사.
- Higgins, E. T., & Spiegel, S. (2004). Promo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 self-regulation: A motivated cognition perspective.
- Holmes, D. S., & Will, M. J. (1985). Expression of interpersonal aggression by angered and nonangered persons with the Type A and Type B behavior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3), 723.
- Hooper, L. M. (2013). Parentification. *The Encyclopedia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 965-971.
- Hooper, L. M., & Wallace, S. A. (2010). Evaluating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psychopathology correlat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1), 52-68.
- Hooper, L. M., DeCoster, J., White, N., & Voltz, M. L. (2011). Characterizing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 between self reported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adult psychopathology: A meta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10), 1028-104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B., Kubzansky, L. D., & Wright, R. J. (2006). Linking perceived unfairness to physical health: The perceived unfairness model.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0(1), 21-40.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
- Jurkovic, G. J., & Casey, S. (2000). Parentification in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In *Proyecto Juventud: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Proceedings of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Applied Anthropology*, San Francisco, CA.
- Jurkovic, G. J., Kuperminc, G., Perilla, J., Murphy, A., Ibañez, G., & Casey, S. (2004). Ec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on filial responsibility: Implications for primary prevention with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1), 81-104.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 Kenny, D. A. (2011). Moderator variables: introduction. Online Tutorial, DOI=<http://davidakenny.net/cm/moderation.htm>.
- Kernberg, O. F. (1998).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the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9, 413-425.
- Konrath, S.,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6). Attenuating the link between threatened egotism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11), 995-1001.
- Kramer, R. M. (1994). The sinister attribution error: Paranoid cognition and collective distrust in organiz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18(2), 199-230.
- Lench, H. C., & Chang, E. S. (2007).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126-135.
- Lessard, J., Greenberger, E., Chen, C., & Farruggia, S. (2011). Are youths' feelings of entitlement always "bad"? Evidence for a distinction between exploitive and non-exploitive dimensions of entitlement. *Journal of Adolescence*, 34(3), 521-529.
- Lobbestael, J., Cima, M., & Arntz,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hostile interpretation bias,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1), 53-66.
- Maltese, S., & Baumert, A. (2019). Linking longitudinal dynamics of justice sensitivity and moral disengag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173-177.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cAdams, D. P., & Olson, B. D. (2010). Personality development: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517-542.
- Meissner, W. W. (2008). Narcissism as motive.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 77(3), 755-798.
- Meloy, J. R. (2006). Empirical basis and forensic application of affective and predatory violenc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6-7), 539-547.
- Mikula, G. (1994). Perspective-related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injustice by victims and victimizers. In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pp. 175-203). Springer, Boston, MA.
- Mikula, G., Petri, B., & Tanzer, N. (1990). What people regard as unjust: Types and structures of everyday experiences of injusti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2), 133-149.
- Mikula, G., Scherer, K. R., & Athenstaedt, U. (1998). The role of injustice in the elicitation of differential emotional re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7), 769-783.
- Mohiyeddini, C., & Schmitt, M. J. (1997).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and reactions to unfair treatment in a laboratory situ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10*(3), 333-353.
- Moses, R., & Moses-Hrushovski, R. (1990). Reflections on the sense of entitlement.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5*(1), 61-78.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
- Nelson, D. A., Springer, M. M., Nelson, L. J., & Bean, N. H. (2008). Normative beliefs regarding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17*(3), 638-660.
- Ollendick, T. H., Jarrett, M. A., Wolff, J. C., & Scarpa, A. (2009).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ross-informant agreement and the clinical utility of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1), 51-59.
- Ostrov, J. M., Murray-Close, D., Godleski, S. A., & Hart, E. J. (2013).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and social and affective processe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 Psychology*, 116(1), 19-36.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
- Polman, H., de Castro, B. O., Koops, W., van Boxtel, H. W., & Merk, W. W. (2007). A meta-analysis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22-535.
- Poulin, F., & Boivin, M. (200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a two-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115.
- Pryor, L. R., Miller, J. D., & Gaughan, E. T. (2008). A comparison of the Psychological Entitlement Scal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s Entitlement Scale: Relations with general personality traits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5), 517-520.
- Reidy, D. E., Zeichner, A., Foster, J. D., & Martinez, M. A. (2008). Effect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and exploitativeness on human physic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65-875.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
- Roberts, B. W., Wood, D., & Caspi, A. (2008).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raits in adulthoo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 375-398.
- Ronningstam, E. (2005).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277-327.
- Rothmund, T., Gollwitzer, M., & Klimmt, C. (2011). Of virtual victims and victimized virtues: Differential effects of experienced aggression in video games on social coope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 107-119.

- Sabag, K., & Schmitt, M. (Eds.). (2016).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pp. 10-14). New York, NY: Springer.
- Schaie, K. W. (1979). primary mental abilities in adulthood: an expl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sychometric.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 Schmitt, M. (2004). Justice sensitivity: assessment and location in the personality space. Virtuelle Fachbibliothek Psychologie an der Saarländischen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Psychologie.
- Schmitt, M. J., Neumann, R., & Montada, L. (1995). Dispositional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8*(4), 385-407.
- Schmitt, M., Baumert, A., Gollwitzer, M., & Maes, J. (2010). The justice sensitivity inventory: Factorial validity, location in the personality facet space, demographic pattern, and normative data. *Social Justice Research, 23*(2-3), 211-238.
- Schmitt, M., Gollwitzer, M., Maes, J., & Arbach, D. (2005). Justice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2-211.
- Seah, S. L., & Ang, R. P. (2008).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sian adolescents: Relations to narcissism, anxiety, schizotypal traits, and peer relation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4*(5), 553-562.
- Shabad, P. (1993). Resentment, indignation, entitlement the transformation of unconscious wish into need.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iever, L. J. (2008). Neurobiology of aggression and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4), 429-442.
- Strelau, J. (1996). The regulative theory of temperament: Current status.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31-142.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Temple, J. R., Shorey, R. C., Fite, P., Stuart, G. L., & Le, V. D. (2013). Substance use as a longitudinal predictor of the perpetration of teen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4), 596-606.
- Thibaut, J. W., & Walker, L. (1975).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L. Erlbaum Associates.
- Thomaes, S., Stegge, H., Olthof, T., Bushman, B. J., & Nezelek, J. B. (2011). Turning shame inside-out: "humiliated fury" in young adolescents. *Emotion*, 11(4), 786.
-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108-118.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emblay, R. E., Hartup, W. W., & Archer, J. (Eds.). (2005). *Developmental origins of aggression*. Guilford Press.
- Trull, T. J., & McCrae, R. R. (2002). A five-factor perspective on personality disorder research.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van der Kolk, B. A., & Courtois, C. A. (2005).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 Van Loon, L. M., Van de Ven, M. O., Van Doesum, K. T., Hosman, C. M., &

- Witteman, C. L. (2017). Parentification, stress,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who have a parent with mental health problems. *Family Process, 56*(1), 141-153.
- Vitaro, F., Brendgen, M., & Barker, E. D. (2006). Subtypes of aggressive behavior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1), 12-19.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 Vitaro, F., Gendreau, P. L., Tremblay, R. E., & Oligny, P. (1998).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differentially predict later conduct problem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3), 377-385.
- Walker, I., & Smith, H. J. (Eds.). (2002). *Relative deprivation: Specification, development, and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s, H. M., Suckow, K., & Cropanzano, R. (1999). Effects of justice conditions on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5), 786.
- Wells, M., Glickauf-Hughes, C., & Jones, R. (1999). Codependency: A grass 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1), 63-71.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
- White, B. A., Jarrett, M. A., & Ollendick, T. H. (2013). Self-regulation deficits explain the link between reactive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1), 1-9.
- Wilkowski, B. M., Robinson, M. D., & Troop-Gordon, W. (2010). How does cognitive control reduce anger and aggression? The role of conflict monitoring and forgiveness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5), 830.

- Witte, T. H., Callahan, K. L., & Perez-Lopez, M. (2002). Narcissism and anger: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correlates. *Psychological Reports, 90*(3), 871-875.
- Xu, Y., & Zhang, Z. (2008). Distinguish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nes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39.
- Zitek, E. M., Jordan, A. H., Monin, B., & Leach, F. R. (2010). Victim entitlement to behave selfish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45.

## 부 록

부록 1. 또래 갈등 척도(PCS)

부록 2. 정의 민감성 척도 - 피해자 정의민감성(JSS)

부록 3. 병리적 자기에 척도 - 특권분노(PNI)

부록 4. 자녀의무 척도- 청소년용(FRS-Y)

## 부록 1. 또래갈등 척도(PCS)

■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 표시 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표시하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놀림 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②	③	④
5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7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②	③	④
8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다.	①	②	③	④
9	누군가에게 화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를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내용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11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②	③	④
12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13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했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③	④
15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6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17	화가 나면, 누군가를 해코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소한 무시에도 싸움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누군가에게 소문을 퍼뜨렸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③	④
2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 부록 2. 정의 민감성 척도 - 피해자 정의민감성(JSS)

해당 질문지는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지입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고, 평소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알맞은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인정(평가나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고 느낄 때, 나는 쉽게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친절한(좋은) 대우를 받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부록 3. 병리적 자기에 척도 - 특권분노(PNI)

▷ 각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 문장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0에서 5점 사이의 적절한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나갈지 않다	별로 나갈지 않다	약간 나갈지 않다	약간 나갈다	꽤 나갈다	매우 나갈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것을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부록4. 자녀의무 척도 - 청소년용(FRS-Y)

■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O 표 해주세요. 개인의 경험들은 다 독특하기 때문에 옳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쇼핑 (음식이나 옷 등)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엄마나 아빠가 의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집에서 나는 내 몫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종종 내 형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가족들은 종종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를 돌봐주셨지만, 나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7	나의 가족들은 내가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8	가족들에게 내 감정은 중요시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종종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가족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2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지 가족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가족들은 나에게 항상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종종 가족들의 빨래를 한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식구들 중 누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매우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집에서 나는 자주 요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19	부모님이 싸울 때, 내가 각자 자신의 편들어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가족들을 돌봐주어야만 할 것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1	종종 부모님들은 나보고 형제를 돌봐주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22	집안이나 밖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23	때때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집안일을 도우려는 나의 노력에 종종 비판적이시다.	①	②	③	④
25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26	부모님은 종종 형제들의 문제를 나보고 도와주라고 요구하신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집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28	종종 내가 부모님의 갈등사이에 끼어있는 느낌이다.	1	2	3	4
29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보기를 기대하신다.	1	2	3	4
30	부모님은 종종 나에게 서로에 대한 힘담을 하신다.	1	2	3	4
31	나는 가족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많이 한다.	1	2	3	4
32	부모님이 글을 쓰거나 말하는데 서투르셔서 내가 대신해드리곤 한다.	1	2	3	4
33	부모님이 공적인 일처리를 잘 못하셔서 내가 도와드리는 일이 종종 있다.	1	2	3	4
34	부모님은 옷이나 음식, 학교 준비물 등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신다.	1	2	3	4